소년단
1962.4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2년 4호 내용

뜨거운 어버이 사랑……………김 옥순(2)
원수님의 품에 안겨……………박 순의(8)
시— 공산주의 붉은 꽃으로……김 정태(14)
원수님이 주신 악기로…………원 영숙(15)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문 혜영(17)
황금산의 주인될래요……………박 옥화(19)
로동당의 참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방 하수(21)
무지개 비낀 공장………………최 옥선(22)
분단 위원회에서 맡은 일………손 병도(24)
안변'별의 옛'이야기……… 글 김 준규 / 그림 최 순천(28)
군중무용…소년단원의 의무 풀이…김 창조(30)
그림이야기…용감한 바다의 누나
……………………………그림 남 현주(34)
바다에 대한 지식(1)…………(편집부)(35)
우리 함께 즐깁시다…………… 〃 (37)
우리들의 작품…………………………(38)
현상 문제……………………………(40)

표지 1면, 4면—만경대의 봄…………리동 춘 그림
표지 2면—소년단원들과 담화하시는 김 일성 원수님
표지 3면—증기로 움직이는 배 만들기……………

뜨거운 어버이 사랑

김 옥 순

…소년단 여러 분은 장래 우리 나라를 걸머지고 나아 갈 미래의 희망이며 꽃봉오리들이다 …

이것은 김 일성 원수님께서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큰 희망을 거시고 끝 없이 깊고 뜨거운 어버이 사랑으로 제일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을 언제나 아낌 없이 배려하여 주신다.

과연 그 얼마나 많은 배려가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돌려지고 있는가!

정전 후 성한 벽돌장 하나 남지 않았던 재'더미 우에 제일 먼저 지어 준 것이 다름 아닌 각급 학교들과 유치원, 탁아소들이 아니였던가!

평양의 장대'재 우에 거연히 솟은 아동 궁전, 모란봉 청년 공원 앞에 호화롭게 일어 선 아동 백화점은 물론 개성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도 소년 회관이요, 송도원, 석암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건물도 바로 소년단 야영소이다.

청년 공원을 비롯하여 도시마다 거리마다 처처에 아동 공원이 있고 이르는 곳마다에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있다.

학생들은 철 따라 새 교복을 공급 받고 상점, 식당, 리발소 모든 곳에서 어린이들에게 제 1 차적인 배려가 돌려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마음껏 배우고 힘껏 노래하고 춤추고 뛰놀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랄 모든 조건을 보장 받고 있다.

우리가 맨주먹으로 빈터우에서 복구 건설의 삽을 들었던 어려운 때에도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먼저 학교를 지을 것부터 생각하셨고 염화 비닐, 비날론 등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이는 어린이들을 아름답게 입히고 차려 줄 것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후대들에 대한 그이의 이 뜨겁고도 깊은 사랑과 배려를 직접 목격할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근 30 년 전 소왕청에서 그이의 따뜻한 손길에서 자라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감명 깊게 회상하게 된다.

1933년 겨울, 다른 유격 근거지와 마찬가지로 소왕청의 형편도 매우 곤난하였다. 우리 유격대의 력량은 아직 청소한데 적들은 매일 수백 명씩 근거지에 달려 들었다.

날마다 전투가 벌어지고 집들이 불타고 가장집물이 파괴되였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하였고 잠'자리도 편한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엄동설한에 홑것을 입고 어설피게 꾸린 막에서 살았고 초근 목피로 연명하였다.

그러나 우리 아동단원들만은 소왕청에서도 제일 크고 좋은 집에서 따뜻한 솜옷을 입고 배 고픈 줄 모르고 지났다.

우리의 대부분은 원쑤들에게 부모를 학살 당하고 놈들이 지른 불 속에서, 죽음의 총창 앞에서 겨우 빠져 나온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고아들이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낳아 기른 친부모들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깊은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리수거우 골안에 있는 작은 귀틀집에서 홑옷을 입으시고 지내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두터운 솜옷과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하여 주시였고 아동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노래 부르며 뛰놀게 하여 주시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이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여 우리에게로 자주 찾아 오셔서는 밥을 잘 씹어 먹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자라고 타이르시기도 하였고 우리들을 안아도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며 무척 사랑하여 주시였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이의 말씀 대로 앞날의 훌륭한 투사가 되리라고 어린 마음에도 굳게 다지군 하였다.

적들의 《토벌대》와 대 전투가 있은 어느 날 밤 문득 잠에서 깨여 난 나는 옆에 김 일성 원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이께서는 당시 아동 국장이던 리 순희 동무에게 조용조용히 말씀하고 계셨다.

《…오늘 전투 때 집이 상한 데는 없소? 아이들이 놀라지나 않았소? 모두 저녁을 고루 잘 먹었소?…》

그이는 내 옆에 누워 있는 아홉 살 되는 김 정희가 차 던진 요포를 덮어 주신 다음 잠든 우리들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 보시며 한 아이 한 아이의 요포를 여며 주시고 베개를 바로 잡아 주시면서 침실을 한 바퀴 돌아 보시고 《요포가 좀 얇아서 춥겠군…》

이렇게 혼자'말로 말씀하시고 나서 밖으로 나가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념려하시여 밤'중에도 주무시지 않고 보살펴 주시누나!)

이런 생각을 하니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이튿날 아침이였다. 일어나 보니 뜻밖에도 새 동복과 이불들이 우리 침실에 가득히 쌓여 있었다.

솜을 두툼히 두고 만든 동복과 남색 이불은 폭신폭신한게 여간만 따스해 보이지 않았다.

우리들은 그이께서 솜 동복과 새 이불과 매 사람당 학습장 두 권씩 보내 주셨다는 소식을 리 순희 동무로부터 듣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새 동복을 입고 너무나 좋아서 서로 안고 돌아치는 아이들도 있었고 학습장을 그러안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야! 이렇게 새 동복을 입은 것을 장

군님께 보여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그래 참, 새 옷을 입고 장군님께 유희대 공연을 보여 드리자! 그러면 유격대 아저씨들이랑 얼마나 기뻐들 하시겠니?》.

《그렇지요, 언니?…》.

우리는 모두 리 순희 동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그의 동의를 구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꼭 장군님께 말씀 드려서 유희대 공연을 보여 드립시다》.

리 순희 동무의 이 말에 우리는 또다시 일시에 환성을 올리며 좋아하였다.

그런데 한 아이가 시무룩해서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었는데 장군님과 유격대 아저씨들은 홑옷을 입고 싸우시니 얼마나 추우실가?!》.

이 말에 아동단원들의 얼굴은 금시에 흐려졌다.

사실 그이와 유격대 아저씨들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새 솜을 두툼하게 둔 솜옷과 이불까지 장만해 주시면서도 자신들은 홑것을 입고 계시지 않는가!

게다가 눈보라 속을 헤치며 원쑤들과 싸우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의 어린 가슴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이의 고마운 배려에 보답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이 차고 넘쳤다.

《뜨뜻하고 좋은 옷 한 벌과 방한화를 우리 힘으로 구해서 장군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니!》.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자 우리는 모두 이에 찬성해 나섰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이께 새 옷과 방한화를 선물 드릴 것을 한결 같이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은 쉽게 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지방에 있는 사냥'군 로인들한테 가서 좋은 가죽과 털을 구하자느니, 유격대 아저씨들에게 부탁하자느니 하고 서로 귀'속의논도 많았고 박 금옥 동무가 살던 적구에 내려 가서 구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었다.

유격대 아저씨들에게 부탁하면 안 될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자기 힘으로 구해서 정말로 우리의 정성이 깃든 선물을 그이께 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정작 자기 힘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어느 것이나 용이하게는 되지 않았다.

사냥'군 로인들과 련계를 취하는 것도 그렇지만 적구로 자신들이 내려 가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였다.

우리들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지 못한 채 나날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유격 근거지 내의 일부 혁명 군중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를 적극 도와 나서게 되였다.

우리들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새 옷 한 벌과 방한화 한 켤레를 마련하였다.

김 일성 원수님 앞에서 유희대 공연을 하게 된 날 우리는 아동 국장 리 순희 동무 앞에 선물을 내놓으며 그이께 드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리 순희 동무는 우리의 정성이 무척 기특하다고 하면서도 《이미 다른 간부들과 유격대원들이 너희들처럼 여러 번 그이께 새 옷과 신발을 드려 봤지만 그럴 때마다 그이는 도루 내놓시며 다른 사람에게 돌

려 주라고 하시였단다…》 라고 자신 없이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듯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아동단원들의 지성이니 이번만은 그이께서도 받아 주시겠지!》.

그 날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유격대 아저씨들과 근거지 인민들이 모인 속에서 우리의 유희대 공연이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리 순희 동무는 그이 앞에 나가서 전후 사실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 옷과 신발을 싼 선물 보자기를 드리였다.

리 순희 동무의 말을 들은 군중들은 모두 어린 아동단원들의 지성에 감동되여 박수와 환호를 보내였다.

《장군님의 교양을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가 보오, 우리 어른들 생각보다 오히려 낫지 않소!》.

《장군님이 어린 것들을 무척 사랑하시니 그 애들인들 그것을 모를라구》.

군중들 속에서는 이런 말이 오고 갔다.

《장군님이 계시기에 저 불쌍한 것들이 에미 애비 있는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행복하게 잘 자라구 있지 않소…》 하며 눈물을 흘리는 부인네들도 있었다.

《장군님, 그 애들의 성의만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한 로인이 그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옳습니다. 우리 생각도 바로 그렇습니다》.

온 장내가 그 말이 옳다고 일시에 떠들석 했다.

시종 웃으시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장내가 좀 조용해지는 것을 기다려 군중 앞으로 한 걸음 나서시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로인들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 조선 인민의 가장 아름다운 품성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옷을 받으면서 먼저 우리 고향에 계시는 나의 할아버지와 같은 로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젊은 청년이고 누구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유격대원들과 함께 지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년로한 이에게 드리여 추운 겨울에 편히 지낼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린 동무들의 정성이 깃든 이 선물을 우리 유격 근거지 내에서 제일 나이 많은 로인에게 드릴 것을 제의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은 만장의 감동을 자아내였다. 로인들을 존경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이의 높은 덕성과 지극한 사랑에 그만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목이 메여 말을 못하였다.

우리들은 모처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선물을 그이께서 받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섭섭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 어데서나 자신보다 먼저 인민을 생각하시며 로인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한 사람 같이 그이처럼 인민을 사랑하는 투사가 될 것을 맹세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나는 김 일성 원수님의 높고 깊은 어버이의 사랑에 다시금 크게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해 12월 적들의 대규모적인 《동기토벌》이 련일 계속되던 어느 날이였다.

유격대 아저씨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고도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가지고 왔다.

《장군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신 선물이다…보아라, 이것은 조선 사과다!》

유격대 아저씨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이의 선물을 전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적들의 배후를 교란하기 위하여 김 일성 원수님께서 몸소 유격대를 거느리시고 적통치구로 나가시여 왕청, 훈춘으로 가는 적의 수송대를 량수천자 부근에서 습격소탕하고 수 많은 무기와 피복, 식량들을 로획하였었다.

그 중에는 왜놈들이 조선에서 략탈해 온 이 사과가 든 궤짝도 있었던 것이다.

대원들은 그 중에서 잘 익고 먹음직한 몇 알을 골라서 먼저 장군님께 드리였다고 한다.

사과를 보신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면서 그 중의 한 알을 손에 드시더니

《이 사과는 조선 사과요! …조선에서는 이런 향기롭고 맛 있는 사과가 많이 나오…》라고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이는 조선의 사과는 명산의 하나로 빛도 곱고 맛도 좋다는 것과 주홍빛 사과가 주렁지는 가을철의 조국은 매우 아름답다는 데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격대원들은 아름다운 조국의 강산이며 철 따라 꽃피고 과일이 익는 사랑하는 내 나라를 머리 속에 그려 보았다는 것이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대원들을 돌아보시며 하루 속히 조국 광복의 위업을 성취하고 아름답고 기름지고 살기 좋은 조국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한 동안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였다고 한다.

《우리 근거지에는 아직 조선 땅을 밟아 보지 못하고 조선의 유명한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소! 그 아이들에게 배 불리 먹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 사과라도 보내여 맛이라도 보게 하시오…》

그이께서는 손에 드셨던 사과를 대원에게 도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는 것이다.

이 때 대원들은 《시장하시고 갈증도 나시겠는데 한 알이라도 맛 보십시오》 라고 아무리 권하였으나 그이께서는 끝내 사양하시였다 한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어려운 싸움 속에서, 식사도 제때에 못 하시고 시장'기와 갈증에 고통을 겪는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근거지에 남아 있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였고 조국을 모르고 조선 사과도 아직 맛 보지 못한 어린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처럼 한 알의 사과로 갈증을 더는 것마저 사양하신 것이다!

그 날 밤 나는 김 일성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사과를 안은 채 오래 잠을 못 이

루었다.

붉고 윤'기 나는 동그란 사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한 조선 사과를 바라보는 나의 눈에는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아름다운 조선을 보는 것 같았고 그이의 뜨거운 어버이 심정이 심장 속으로 스며 드는듯 하였다.

왜놈들에게 집을 불태우고 부모를 잃은 후 의지할 곳이 없어 아홉 살 때부터 남의 집 아이를 보고 다리가 붓도록 발방아를 찧어 주어야 하던 내가 그이의 이 지극한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된 것을 생각하자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이불을 머리 우까지 뒤집어 쓰고 실컷 울었다.

그 때까지 자지 않고 있던 아동국장 리 순희 동무가 달려 와서 《옥순이, 왜 그래?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생겼어?》 하며 근심에 찬 얼굴로 내 이불을 들치고 들여다 볼 때에야 비로소 나는 제 정신이 들었다.

《아니야요, 아무 것도 아니야요…》.

《아동단원이 그렇게 약해서는 못 써요. 어떠한 고난이던 참고 이겨야 훌륭한 아동단원이 될 수 있어요. 옥순이는 더구나 분대장이 아니예요? 누구보다도 마음을 크게 먹고 모든 것을 참고 이길 줄 알아야 하지 않아요…》.

리 순희 동무는 내가 무슨 곤난 때문에 우는 줄로만 알았던지 이렇게 달래며 말하는 것이였다.

《아니야요, 곤난해서 우는 게 아니야요…》.

나는 간신이 울음을 그치고 마음 속에 품은 심정을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리 순희 동무는 나의 말을 듣고 나서 잠시 말 없이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두 눈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다.

《…장군님의 말씀 대로 몸 튼튼히 하고 공부를 잘 하며 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조국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야 해!》.

리 순희 동무는 이런 말을 하며 내 손을 꽉 잡아 주었다.

나는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 그이의 훌륭한 전사로 자라리라 더 굳게 결심하였다.

이것은 근 30 년 전에 있은 일이다.

그러나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이의 따뜻한 어버이 사랑 속에서 자라난 나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어언 30 년이 지난 오늘도 나는 김 일성 원수님께서 예나 이제나 다름 없는 깊고도 뜨거운 어버이 사랑을 후대들에게 돌려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이처럼 어린이들을 귀중히 길러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점과 결함도 많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전국의 어머니들에게는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것을 당부하셨고 경공업 일'군들을 향하여서는 철따라 다양한 아동 용품을 아름답고 맵시 있게 만들 것을 강조하시였으며 지도일'군들에게는 추운 겨울에 외투와 방한모 없이 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 나라의 한 어린이, 한 고아에 이르기까지 빠짐 없이 살살이 미치는 그이의 이 뜨거운 어버이 사랑— 끝 없이 넓고 깊은 배려와 간곡한 교시를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후대 교양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나는 다시금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된다.

원수님의 품에 안겨

박 순 의

나의 책상 앞에는 원수님과 함께 찍은 두 장의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한 장은 내가 만년필을 꼭 쥐고 원수님께서 펼치고 눌러 주신 수첩에 글을 쓰고 있는 것과 또 한 장은 원수님의 무릎에 앉아 좋아라고 웃고 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나는 이 사진을 바라 볼 때마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 일성 장군

하고 노래를 부르군 합니다.

1958년 5월 8일 아침이였습니다. 고운 명절 옷 차림에 꽃다발을 들고 밖으로 나갈 차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이예요?》.

《순의야, 오늘 원수님께서 아침 차로 우리 혜산에 오신단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깡충깡충 뛰며 아직 잠자고 있는 두 오빠들을 흔들면서 《원수님이 오신대!》 하고 큰 비밀이나 말하듯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들은 이불을 걷어 차고 일어 나서 좋아라고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역전으로 가시고 나는 학교로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명절 옷 차림을 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길이 미여지게 역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역전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 뿐이였습니다.

《학생들은 래일 아침 일찌기 학교에 나와야 해요. 오늘까지 련습한 무용을 한번 맞추어 보겠어요.》 하던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만 역전에 가서 원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속에 끼여 들어 갔고 역전으로만 내달았습니다.

도중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자 학교에서 모두 줄을 지어 올텐데 얼른 학교로 가야한다고 타이르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그 때처럼 어머니가 야속해 보이고 어른들이 부러운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학교로 발'걸음을 돌리며 내키지 않는 걸음을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나는 교실에 들어 설 때까지 몇번이고 서서 역전 쪽을 돌아다 보면서 갔습니다.

무용 련습을 하면서도 나는 《역전으로 나가기만 했더라면 원수님을 만나 뵈였을 것을!》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 순의, 또 발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몇 번이나 선생님 한테서 주의를 들었으나 이 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여늬 때 보다 발이 맞지 않아서 칭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원수님이 다녀 가시기 전에 꼭 한 번 뵈올 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이였습니다.

《오늘은 련습을 더 잘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해야 원수님이 기뻐하시지요. 알겠어요? 순의도 오늘은 잘 해 봐요》.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선생님이 고쳐 주시는 대로 척척 바로 잡아 나갔습니다. 이 때 현 선생님이 고운 꽃다발을 들고 교실에 들어 오시였습니다.

담임 선생과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난 뒤 《순의야, 빨리 가자》하면서 현 선생님은 나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괘궁정 기슭에 있는 운동장 어귀에 와서야 나는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만 내 손을 잡고 있던 선생님의 손을 마구 흔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명절 옷 차림을 한 사람들로 꽉 들어 찬 운동장은 꽃바다 같았습니다. 맨 앞에 선 나는 원수님께 드릴 꽃다발을 가슴에 꼭 껴안고 원수님이 주석단에 오르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원수님이 주석단에 나오시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 만세!》, 《조선 로동당 만세!》 소리가 산이 떠나 갈듯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주석단에 뛰어 올라 가서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꽃다발을 받으시자 원수님은 나의 머리

를 쓰다듬어 주시고나서 나와 리 지순을 버쩍 들어서 대 우에 올려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의 환호 소리는 더욱 높아만 갔습니다.

나도 광장이 꽃바다처럼 바라 보이는 높은 대 우에서 온 힘을 가슴에 모아 만세를 불렀습니다.

원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그냥 웃으시고 계시였습니다. 나는 꿈만 같이 생각되였습니다.

원수님의 품에 안겨 나는 다시 대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원수님의 곁에 다가가서 원수님의 손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수님의 옷을 살금살금 만져 보았습니다. 원수님의 손을 몇 번이고 얼굴에 대 보기도 하였습니다.

원수님의 크고 따뜻한 손을 만져 본 나는 언젠가 선생님이 들려 주시던 이야기가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원수님은 어렸을 때 이 손에 새 총을 틀어 쥐고 순사놈을 겨누어 쏘았겠지).

원수님은 한 쪽 손으로 내 손을 꼭 쥐시고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연설을 하시면서도 때때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저 우리 순의가 제일이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을 하시던 원수님은 비가 내리자 나를 굽어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스프링 앞깃을 열고 나와 리 지순을 품에 넣어 주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슬비 방울이라도 맞을세라 품'속에 안아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원수님의 좌우 품'속에 들어 간 우리는 서로 마주 보며 스프링 안에서 소곤소곤 별별 이야기를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목을 움추리며 《원수님》 하고 낮게 소리 내여 불러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비'방울이 원수님의 반짝거리는 구두 우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나의 빨간 치마를 들어 원수님의 구두 우에 떨어지는 비'방울을 막았습니다.

원수님은 연설을 하시다가도 우리를 몇 번이고 굽어 보시면서 웃으시기도 하시였습니다.

이 때 우리는 두 팔을 서로 벌리어 마주 쥐고 원수님을 꼭 그러안으면서 쳐다보았습니다.

원수님은 연설을 끝내시자 군중들의 환호에 모자를 들어 인사를 보내시는 것이였습니다.

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는 주석단에서 내려 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원수님은 얼른 우리 손을 잡으시며 《애들아,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겠니?》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나 큰 소리로 대답했던지 원수님은 웃으시기까지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우리의 손목을 잡고 층층대를 내려 오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안아서 자동차에 앉히시였습니다.

(원수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가?).

원수님의 무릎 우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이 시리겠구나》 하시며 원수님은 나의 두 손을 한데 모아 큰 손으로 싸 쥐시고 따뜻하게 덥히여 주시였습니다.

손이 다 녹은 뒤 원수님은 나를 품에 꼭 껴안으시며 얼굴로서 나의 볼을 부벼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원수님은 나에게 물으시였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박 순의입니다》.

《몇 살이지?》.

《여덟 살입니다》.

《여덟 살, 참 똑똑하구나, 그래 생일은 언제냐?》.

《6월 28일입니다》.

《정말 똑똑한데. 너의 집은 어느 길로 가느냐?》 하시며 창 밖을 내다 보시였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밖을 내다 보며 나는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 드렸습니다.

원수님은 내가 가리키는 길을 내다 보시더니 《너의 집으로 가는 길이 참 좋구나》 하시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발과 꽃다발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시자 원수님은 손을 들어 흔드시였습니다. 나는 꽃수레를 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나의 동무들이 원수님의 무릎 우에 앉아 있는 나를 보았으면 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어느덧 역전에 와 닿았습니다. 원수님의 집이 어떻게 생겼을가 하고 생각해 온 나는 놀랐습니다. 원수님의 집은 뜻 밖에도 렬차 안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우리를 렬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가시여 《춥지 않느냐?》 하시면서 꼭 껴안아 주시였습니다.

《춥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는 원수님의 목을 안고 좋아라고 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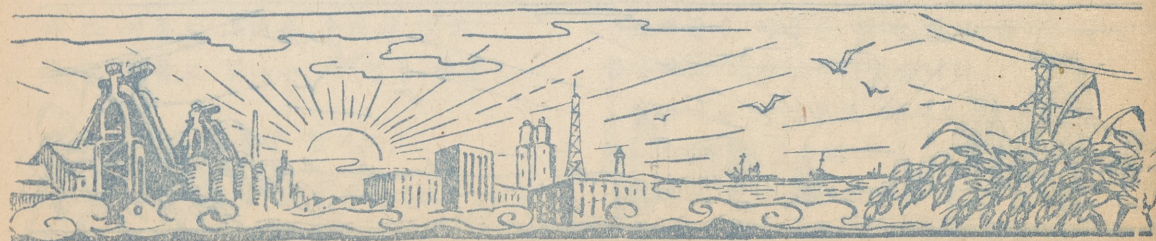
이 때 찰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들은 소리 나는 곳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느새 들어 오셨는지 사진기를 든 아저씨가 계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우리를 걸상에 앉히시더니 호주머니에서 수첩과 만년필을 내 놓으시는 것이였습니다.

《자, 너희들의 이름을 써 보아라.》 하시면서 리 지순에게 만년필을 쥐여 주시였습니다. 지순이가 쓴 다음 원수님은 만년필을 나에게 쥐여 주시고는 《지순이는 너무 작게 썼는데 너는 좀 큼직하게 써 보아라.》 하시면서 하얀 수첩을 한 장 번지고 두 손으로 눌러 주시였습니다. 만년필을 꼭 쥐고 나는 원수님을 한 번 쳐다 보았습니다.

원수님이 흉보시지나 않으실가 하고 생

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원수님은 《어서 써 보아라.》 하시고는 웃으시면서 수첩을 가리키시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한자 한자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눌러 써 나갔습니다.

원수님의 만년필에서 흘러 내리는 보라색 잉크로서 원수님의 수첩에 내 이름이 적혀질 때 나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자꾸자꾸 써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님은 수첩을 다시 지순이 앞에 옮겨 놓으시고 《순의처럼 너도 크게 한 번 더 써 보아라.》 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두 번씩이나 원수님의 수첩에 이름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도 새로 탄 교과서나 학습장에 이름을 쓸 때면 원수님이 나의 곁에서 보고 계시는 것만 같아 곧바르게 그리고 크게 쓰군 합니다.

원수님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찍은 사진을 꼭 보내 주시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거리는 갈색 뚜껑의 수첩을 접어 호주머니에 넣으시면서

《이 수첩을 우리 집에 있는 너의 동생들에게 갖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은 만년필을 도로 꽂고 나서 차근차근 물으셨습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혜산 사범 전문 학교 부속 인민 학교에 다닙니다.》

《몇 학년이지?》.

《네, 1 학년입니다》.

《1 학년 몇 반에 다니느냐?》.

《1 학년 복식반입니다》.

《무슨 교과서가 없느냐?》.

《다 있습니다》.

원수님은 《무슨 밥을 먹지?》 하면서 우리 집 살림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물으시는 것이였습니다.

《너희들은 춤을 잘 추느냐?》고 또 물으시였습니다.

서로 마주 보며 우리가 얼른 대답 안 하는 것을 보시자

《잘 추는 모양이구나, 어서 한 번 추어 보아라.》고 하시였습니다. 나는 지순이를 보았습니다.

지순이도 나를 보는 것이였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우리는 약속이 되였던 것입니다.

나는 지순이와 함께 손발을 맞추어 가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탐스럽게 앵두가
가지마다 열렸네
빨간 앵두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라

첫참으로 딴 앵두
누구에게 드릴가
우리들을 사랑하는
수령님께 드리자

이렇게 노래하며 《탐스럽게 자란 앵두》를 추었습니다.

춤이 끝났을 때 원수님은 박수를 치고

웃으시다가 우리를 다시 껴 안아 주시면서 자꾸자꾸 칭찬하여 주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춤을 추느라고 수고했구나. 이 사과를 어서 먹어라.》하시며 새빨갛고 큰 사과를 쥐여 주시였습니다.

눈 같이 새하얀 종이로 곱게 싼 네모난 과자통도 하나씩 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어찌나 기뻤던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서로 마주 보기만 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빨갛고 큰 사과를 쥐고 나란이 앉은 우리를 번갈아 보시면서 기뻐하시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한 마디도 못 드린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원수님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나에게 물으시였습니다.

《공업품 상점에서 사무를 봅니다》.

《식구는 몇이냐?》.

《아홉 식구입니다》.

지순이에게도 여러 가지를 묻고 나신 뒤 《인제는 집에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기다릴텐데 어서 가 보아라》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우리를 앞세우고 승강대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아저씨에게 우리한테 들으신 대로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원수님은 《순의도 지순이도 잘 가거라, 그리고 공부도 잘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꼭 쥐고 놓지 않던 그 손을 흔들어 주시였습니다.

우리는 나란이 서서 《김 일성 원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이고 원수님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원수님의 곁을 떨어지기가 싫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굽이'길을 꺾어 돌아갈 때까지 원수님이 계시는 차창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김 일성 원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원수님과 헤여진 서운한 마음은 더욱 커 갔습니다.

자동차는 어느 새 우리 집 앞까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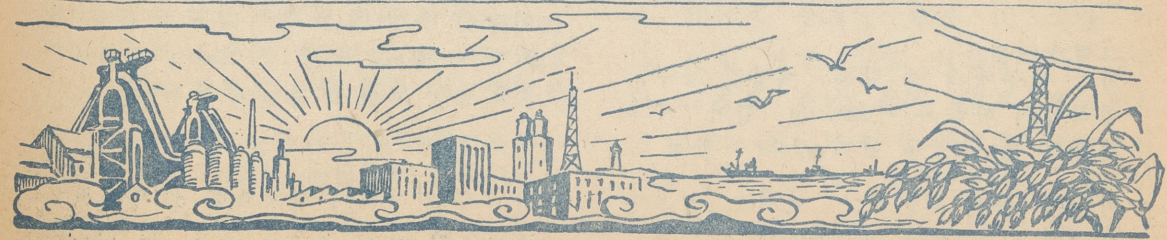
차에서 내린 나는 멀어져 가는 자동차를 오래오래 바라 보았습니다.

그 날 밤 우리 집안 식구들은 각가지 색갈과 모양을 가진 과자들이 들어 있는 과자통을 둘러 싸고 앉아서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들 앞에서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던 일부터 집까지 돌아 온 이야기를 빠짐 없이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다 듣고 나신 뒤 할머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시면서 《자네들은 머리칼을 베여 신을 삼아 드린들 원수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다 갚겠냐?》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순의야, 넌 정말 공부를 잘 해서 원수님의 훌륭한 딸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 다녀 가신 날부터 나는 사

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웬 일인지 1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사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원수님께서 아마 잊으시였나봐…)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꼭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시였는데 이제 꼭 올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원수님이 다녀 가신 지 한 달이 넘는 6월 28일이였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진이 내 이름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나는 사진 봉투를 열은 떼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움과 기쁨이 마구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입 속으로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하고 몇 번이고 되뇌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원수님의 무릎 우에 앉은 나! 원수님의 앞에서 글을 쓰고 있는 나!

《넌 생일이 언제라구 했지?》.

《네, 6월 28일입니다》.

원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의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바로 그 날에 사진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두장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공부와 소년단 생활을 더 잘하여 원수님의 훌륭한 딸이 될 것을 원수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분단은 《모범 분단》으로 되였고 나는 1961년 4월 15일에 중앙 모범 소년단원으로 되였습니다.

원수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자라 나고 있는 나는 여늬 날도 그렇지만 더우기 보슬비 내리는 때면 원수님의 품에 안겼던 일들이 더욱 눈 앞에 떠 오릅니다.

김 일성 원수님! 박 순의가 멀리서 인사를 드립니다.

공산주의 붉은 꽃으로

김 정 태

얼른 보기엔 앞 집 영이와 같고
우리 분단 위원장과도 비슷합니다.
웃음이 담뿍 어린 시원한 눈매
빨갛게 빛나는 두툼한 앵두볼이.

그 애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무로서 해야 할 일 했을 따름이예요.

붉은 넥타이 바로 잡으며 말 했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동단원들의 뒤를 따라 다만
소년단원이 할 일을 했을 뿐이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원쑤에게 두 발을 빼앗긴 동무,
창식이의 아픔과 괴로움을 덜어 주고
기쁨에 찬 나날을 어깨 겯고 가자고

비'바람 몸을 휘여잡는 날에도 눈보라
사납게 길을 막는 그 날에도
3년을 하루 같이 창식이를 업고 노래 부르며
봉학산 고개'길을 넘고 넘은 광선이—.

뒤 떨어진 창선이를 도와서
산수 문제도 함께 풀고 국어도 익히며
즐거운 겨울 방학을 고스란이 바쳐
끝내 최우등생으로 이끌은 광선이—.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말수 적어, 제 자랑 하지 않아도
백 광선 동무는 오늘의 아동단원
사회주의 새나라의 붉은 꽃송이

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슬기로운 꽃송이되라
항일의 홰'불 높이 장백을 넘나드시며
원수님이 펼쳐 주신 로동당 시대

로동당 새 세상에 우린 핍니다.
자랑스런 광선이와 어깨를 겯고
아버지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공산주의 붉은 꽃으로 활짝 핍니다.

원수님이 주신 악기로

우리 학교에 오시는 사람들은 누구나 현관에 들어 서기 전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앞에 오래오래 서 있습니다.

색동 저고리를 곱게 입은 아이들 가운데 앉아 계시는 김 일성 원수님!

원수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우시고 한 소년단원에게 무엇인가 묻고 계십니다.

그애는 우리 분단 리 승철 동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원수님의 손'길을 잡고 좋아 어쩔줄 모르는 애가 나구요.

이것은 1959년 11월 13일 김 일성 원수님께서 해주에 오셨을 때 우리 학교 써클원들의 바라이데,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 민족 기악 합주 《협동 마을의 경사》를 보시고 함께 찍은 사진을 그대로 크게 그려 붙인 거예요.

그때 원수님은 우리들의 연예 공연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여 당의 붉은 전사가 되여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 훌륭한 써클로 발전시키라고 하시였지요.

이때는 벌서 우리들이 원수님을 두 번째 뵙게된 때였습니다.

우리들이 원수님을 처음 뵙게된 것은 1958년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 때였습니다. 1등의 영예를 지닌 우리 학교 써클원들은 군무 《해바라기》를 가지고 영광스럽게도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그 때도 원수님은 참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더 잘 련습하여 래년에 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 악기 1조와 양복 한 벌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의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을 무엇에다 비기겠습니까! 학교에 돌아 온 우리는 원수님이 주신 악기로 써클을 더욱 발전시키며 공부도 잘해서 반드시 이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리라고 마음 다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 단 위원회에서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한편 써클을 널리 발전시켜 누구나가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며 언제 어데서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시도 랑송할 줄 알게 하는 데 힘썼습니다.

써클원들은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동무들을 배워 주기 위해 더욱 힘썼습니다.

자기가 맡은 동무를 집에 데리고 가서 함께 공부하고는 밤 늦게까지 악기 타는 련습을 하는 동무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써클원은 14명으로 부터 100명 가까이로 늘고 모두다 앞을 다투어 원수님이 보내 주신 악기를 배웠습니다.

원수님이 보내 주신 악기 반주에 맞추어 분단마다 노래와 춤, 시 랑송 등으로 나날이 흥겨워지니 학습과 소년단 생활도 더욱 활기를 띠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음해 11월에 그처럼 영광스럽게도 또다시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11월 13일을 우리 학교의 명절날로 정하고 연예 써클, 체육등 경연 대회와 여러가지 모임을 가집니다.

이것은 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써클과 학습, 소년단 생활을 통해 자라 온 한해 동안의 보람찬 총화이기도 합니다.

작년 11월 13일에는 분단별 써클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누구나 악기를 타고 시도 읊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겼습니다. 그중에서 인민반 3학년 동무들이 내 놓은 노래 스케취 《우리는 모두 최우등생이 됐어요》는 참 좋았습니다.

이들은 입학한 날부터 원수님의 교시를 지켜 최우등생이 됐지요.

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우리는 써클도 잘하지만 공부도 일도 소년단 생활도 무엇이건 다 잘하는 소년단원이 되였습니다. 날마다 최우등생이 늘고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참가하는 분단이 늘었습니다.

원수님이 주신 악기는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만 즐겁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황해남도 여러 학교의 200명이 넘는 써클원들에게 악기 타는 법을 배워줬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학교《소년 선전 예술대》는 원수님이 주신 악기를 들고 때때로 공장과 농촌으로 찾아 가서 춤추고 노래 불러서 그곳 아저씨들의 일'손을 흥겹게하여 드린답니다. 우리가 해주 영예군인 문방구 공장 아저씨들을 찾아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구경하신 아저씨들은 원수님이 보내 주신 악기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타보고 싶어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짬을 내여 아저씨들을 찾아 가 배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2. 8절에는 이 공장 영예 군인 아저씨들과 함께 바라이테 《꽃은 계속 핀다》를 공연했답니다.

그때 원쑤놈들과의 싸움에서 두 다리를 잃은 김 용권 아저씨의 아쨍 독주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몹씨 감탄시켰습니다. 그처럼 훌륭히 연주 하도록 우리 분단 최정숙 동무가 도와 드렸지요.

1958년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 때 원수님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을 때 나는 열두살 난 인민반 2학년생이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솜씨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공연 프로에는 우리 분단 리 승철, 김 영덕 동무들이 작곡한 《풍년 든 가을》, 《평양의 노래》도 있습니다. 원수님의 교시를 받든 우리는 이렇게 작곡까지 할 수 있게 자랐답니다.

해마다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하고 그때마다 높은 칭찬을 받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우리들은 이 행복을 가락에 담아 오늘도 노래 부르며 춤춘답니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공산주의 높은 언덕 달려 나가는
우리는 로동당의 붉은 전사 되렵니다.

황남도 해주시 승마 중학교 단
원 영숙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작년 5월 6일이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갑자기 온 학원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정말 꿈만 같아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우리들이 2 층에서 뛰여 내려 왔을 때 벌써 김 일성 원수님은 웃으시면서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것이였습니다.

언제나 그립던 원수님! 동무들은 모두 달려 나와 《김 일성 원수 만세!》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나는 뛰여 나가 《김 일성 원수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소년단원의 경례를 드리고 붉은 넥타이를 매여 드렸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웃으시며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어디 너희들이 사는 집을 좀 보자》라고 하시며 먼저 우리들의 식당부터 돌아 보시였습니다. 우리들의 호실에 들어 와 보시고는 우리들이 새로 받은 학생복이며 조선 옷들을 하나하나 만져 보시고 이젠 우리의 손으로 비날론 공장도 지었으니 비날론으로 더 좋은 옷을 해주시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원수님 앞에서 비날론 옷을 입을 래일을 그려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우리들이 덮고 자는 이불이며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일일히 보살펴 주시며 학생들은 학습을 잘하여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여야하며 해수욕, 철봉 등 체육과 등산, 야영, 행군 등도 정상적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그 날부터 김 일성 원수님의 말

씀을 실천하기에 떨쳐 나섰습니다.

교실과 호실마다에 원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곱게 써 붙이였고 동무들의 《붉은 마음 수첩》과 학습장의 첫 장에도 깨끗이 써 넣었습니다. 이리하여 아침에 일어나거나 공부할려고 학습장을 펼칠 때마다 항상 먼저 원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대로 하루 생활과 학습을 하군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한 번씩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어린 혁명 전사들》, 《만경대》, 《력사》,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등을 읽고 원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하셨는가를 토론하고 그 모범을 본받으며 원수님의 가르침을 훌륭히 지켜 낸 혁명 투사들과 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따르는 일을 조직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들은 모임을 열고 우리 당 네번째 대회를 원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훌륭히 지켜 모두 우등, 최우등의 선물로 맞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우등, 최우등생 대렬을 늘쿠기 위해 창작품 전람회, 학과 경연 대회, 천리마 기수 아저씨들과의 상봉 모임도 조직하였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조직하는 학과 경연 대회와 창작품 전람회에서는 우수한 동무들에게 《어린 발명가》, 《어린 물리 학자》, 《어린 문학가》 등의 이름을 붙여 주며 벽보와 《영예의 붉은 수첩》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등, 최우등생이 되기 위해 힘써 온 모범 소년단원들과 분단들을 표창하기도 하였습니다.

6 분단과 8 분단은 우등, 최우등생 분단으로써 벌써 세 번이나 원장 선생님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연 대회가 끝나면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어떻게 학습하였는가를 총화 짓고 새 결의를 다지며 원수님의 교시 실천에서 모범을 보인 동무들의 경험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라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모두가 해양크루쇼크에 참가하여 한 가지 이상의 헤염을 칠줄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전국 수영 경기 대회의 소년급에서 우리 학원은 1 등의 영예를 쟁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작년 여름에 원수님의 교시 실천을 위해 바다'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헤염도 배우며 바다 식물과 동물들의 표본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학원에는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바다에 대한 표본들이 50 여 종이나 됩니다.

우리들은 조기 체조는 물론이고 체육 경기, 등산과 행군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해 여름에는 200 리나 되는 신포까지 행군을 하였습니다. 비까지 와서 발에 물집이 생겼지만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이 하루에 100 리씩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상적으로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82%의 동무들이 소년급 체력 검정에 합격되였습니다.

원수님이 우리 학원을 다녀 가신 지 1 년이 되여 오는 지금 우리들은 원수님의 말씀 대로 공부도 잘 하고 몸도 튼튼한 소년단원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계속 원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원수님의 붉은 전사가 되겠습니다.

함흥 유자녀 학원
문 혜 영

—평북도 창성군 약수 중학교 단 위원장 박 옥화—

나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날의 일을 생각하면 앞이 훤해지고 가슴이 막 솟아 오릅니다.

지난 해 8월 1일 저녁녘이였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는 뜻하지 않았던 경사가 생기였지요. 글쎄 뜻 밖에도 김 일성 원수님께서 우리 집엘 찾아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약수'골에서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 집을 말이지요.

원수님은 창성군에 오시였다가 우리 집을 찾아 주시였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집 둘레를 한 바퀴 돌아 보시고 부엌까지도 돌아 보시였어요. 그리고 방안에 들어 오시여 나의 학습장도 한장한장 뒤져 보시였어요. 순간 나는 엊그제 학교에 오셔서 《공부 잘들 했지》 하시던 원수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 올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들먹거리는 가슴을 안고 원수님을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글도 잘 쓰고, 꽃밭도, 집도 잘 거두었다고 칭찬을 하시였어요.

나는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기뻐서 하늘에라도 날아 오를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 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원수님의 사랑 속에서 나는 행복해요. 원수님의 가르침 대로 공부를 더 잘하여 반드시 나라의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겠습니다.)

이 날 원수님은 우리 집 생활에 대하여도 차근차근 물으시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봉급은 얼마나 타는가?》, 《가축은 얼마나 기르는가?》고 물으시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을 더 잘할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님은 산간 사람들도 벌방 사람들에게 못지 않게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는 산이 많으니 풀을 먹는 가축을 많이 기르고 부업을 잘 하여 생활을 계획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언제나 창성군에 오시면 산간 사람들은 산을 잘

리용하여 생활을 더 잘 꾸릴 줄 알아야 한다고 친히 가르쳐 주시던 원수님이 이번에는 이처럼 직접 우리 집을 찾아 생활을 보살펴 주시니 이 감격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날 밤 우리 집 온 가족은 너무도 감격하여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원수님의 이 깊은 사랑에 보답하며 원수님께서 주신 가르침 대로 생활을 더 잘 꾸릴 데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힘에 맞는 일들을 골고루 나누어 맡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양을 맡아 기르고 어머니는 돼지와 개, 언니는 닭, 학교 다니는 우리 네 형제는 토끼 기르기, 산과실 따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항상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고 하루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과표도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잘 해 나가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을 총화의 날로 정하고 붉은 별을 누가 더 많이 쟁취하는가 경쟁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버지는 황금산 마을의 모범 로동자로, 우리 형제들은 모범 민청원, 모범 소년단원이 되여 《공산주의 가정》의 영예를 지니며, 살림을 더 잘 꾸림으로써 산 좋고 물 좋은 황금산의 주인된 자랑으로 원수님의 배려에 기어이 보답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 날 밤 우리는 원수님의 초상화 아래에다 교시 내용을 정성 담아 곱게 써 붙이고 자리에 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온 가족은 원수님을 만나 뵌 기쁨과 감격으로 하여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님의 뜨거운 손'길이 산'골 한 로동자의 가정인 우리 집에까지 미치다니…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원수님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공부를 잘하여 크거들랑 이 곳 황금산의 주인으로 될래요.)하고 나는 마음 속 깊이 몇번이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때로부터 반 년이 좀 남짓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새 교복에 토끼털 깃을 단 외투를 입고 학교에서 돌아 오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고장 사람들의 비참했던 지난 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였어요. 《왜정 때 이 고장 사람들은 뼈가 휘도록 일을 하여도 굶주리고 헐벗고 죽지 못해 살아 왔단다. 겨울에도 베 옷을 입어야 했고 초가집에 벼'짚도 없어 풀을 베여다 이영을 씌웠다. 아이들은 학교라고는 생각도 못했단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외투까지 입고 학교에서 돌아 오는 것을 보니 정말 옛날 호부자 부럽잖다. 이게 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덕이란다.》 아버지는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난 날엔 사람 못 살 험한 산'골이였던 이 고장에 오늘은 아담한 문화 주택들이 즐빗이 늘어 섰고 골짜기와 산등성이마다에는 염소와 양떼가 무리 지어 흐르며 온갖 산과실이 무르익고 꿀벌이 날아 다니는 황금산으로 변하였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겠어요.

학대와 주림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 온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늘은 어엿한 나라의 주인으로, 황금산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은덕인가를, 누구의 보살핌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 공부를 더 잘하여 황금산의 주인으로써 쓸모 있는 지식을 키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 드는 아름다운 내 고향을 더욱 살기 좋은 황금산으로, 공산주의 락원으로 빛내이겠습니다.

로동당의 참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7일 비날론 공장 준공을 경축하면서 5월의 명절을 기념하는 함흥시 군중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나는 김 일성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나를 안아 주시며 《너는 로동당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였습니다.

정말 나는 로동당의 아들입니다. 지금 나의 몸에는 250 여 명의 살'점이 붙어 있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이 아니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내가 온 몸에 화상을 입고 흥남 비료 공장 병원에 입원한 것은 1960년 11월이였습니다.

세상엔 아직까지 나처럼 큰 화상을 입고 살아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내가 아직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작년 2월 18일이였습니다.

《하수야, 김 일성 원수님이 보약을 보내 주셨어.》

나는 함 정희 간호원 누나의 목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이?!》.

《이걸봐! 하수야 네가 빨리 나으라고 원수님이 이렇게 보약을 보내 주셨어》.

간호원 누나의 말은 감격에 떨리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이렇게 몇 번이고 마음 속으로 외우며 원수님의 초상화를 오래오래 바라 보았습니다.

나는 김 일성 원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간호원 누나는 고운 색종이로 싼 보약 꾸러미를 풀고 보약들을 하나하나 나의 손에 쥐여 주었습니다. 나는 금시에 병이 낫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이 보내 주신 보약을 먹으면서부터 나는 차츰 입맛이 돌아 밥도 전보다 많이 먹게 되였습니다.

원수님이 첫 보약을 보내 주신지 1 주일이 지난 2월 26일이였습니다. 원수님은 또 보약과 많은 과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열 번이나 보약과 과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원수님이 보내 주신 보약을 먹고 나는 튼튼한 몸이 되여 퇴원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몸은 전보다 더 튼튼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힘도 더 세여졌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동무들과 함께 공도 차며 해'빛 밝은 교실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소년단 생활을 잘 하여 참다운 조선 로동당의 아들, 김 일성 원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함흥시 류정 중학교

방 하 수

동무들은 무지개 비낀 공장이라면 그게 무슨 공장일가? 한번 보았으면 하겠지요. 소년단원 동무들! 무지개 비낀 공장을 보고 싶으면 나와 함께 평양 방직 공장엘 가 보자요.

지금 천을 짜고 계시는 이분은 천리마 작업반장 현 춘자 누나입니다. 우리 이 누나가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읍시다. 금년도 2억 5천만 메터 직물 고지를 점령할 전투를 담당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직물 고지를 더 잘 더 빨리 점령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질 좋은 옷감을 더 많이 보낼 것인가고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을 알으신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 공장에 친히 오셨답니다. 원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일일이 돌아 보시고 우리가 더 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답니다.

직접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끝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원수님의 가르침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가지각색의 색갈 천들, 꽃무늬 천들과 양복지, 외투지, 캬바징, 뽀뿌링, 고두뗑 등 못 짜 내는 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한 사람이 한 기계로 8 시간 동안에 36~37 메터를 짜던 것을 지금은 45 메터까지 짜서 매일 산'더미 같이 천을 쌓아 올리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천을 짤 수 있었는가구요?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요. 그럼 이제 그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빈틈 없는 준비

소년단원 동무들도 공부를 더 잘 하기 위해 학교에 가기 전에 학용품을 잘 갖추고 학습 준비를 잘 해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로동 시간을 1 분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고 일을 시작하여 더 좋고 더 많은 천을 짜고 있답니다.

그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다루는 기계와 천을 짤 재료들을 돌아 보며 전번 교대 사람들이 일할 때 이상이 없었는가를 알아 보는 등 갖은 준비를 빈틈 없이 합니다.

지난 날엔 기계가 고장이 난 후에야 와서 고쳐 주던 수리공 아저씨들도 지금은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게 미리 돌봐 주며 잠시도 기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준비를 잘하고 일하기 때문에 줄지여 까마득히 늘어 선 저 수 백 대의 기계들이 잠시도 헛되이 멎어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강물처럼 아름다운 옷감들이 흘러 나와 태산처럼 쌓인답니다.

★ 1 분도 헛되이 하지 않고

같은 기계와 같은 시간에 천을 더 많이 짜고 덜 짜는 것은 누가 기계를 더 잘 살피는가에 달려 있답니다.

지금 한 치의 천이라도 더 많이 짜자고 결심한 직포공 누나들은 기계를 잘 살피기에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지금 실이 끊어져 기계가 멎는 일이란 거이 없습니다. 제때에 제깍 이어 놓으니까요. 실을 잇는 시간도 서로 경험을 나누며 기술을 배워 지난 날 20 초에 한 오리를 이었다면 지금은 15 초에 한 오리를 잇고 있어요.

또 우리는 지난 날 한 사람이 평균 15 대의 기계를 맡아 보았는데 지금은 20 대 그 이상 보는 동무들이 나날이 늘어 가 그만큼 더 많은 천을 짜고 있답니다.

조 선희, 김 정옥 누나들은 참말 나는 듯이 기계를 살피며 다른 동무들보다 한달에 800 메터나 더 많은 천을 짜내고 있어요.

지금 2억 5천만 메터의 직물 고지를 점령하기에 떨쳐 나선 우리 작업반 누나들은 매달 자기 계획을 초과하고 있답니다.

☆ 나의 옷감 짜기

천을 많이 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민들의 마음에 드는 질기고 좋은 옷감을 짜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는 자기 옷감을 짜는 마음으로 한 치 한 치에 있는 정성을 다 담아 짜내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흠이 가지 않고 곱고 쫀쫀하게 짜지는가 하고 한번 더 보며 모두 1 등품을 짜내기에 힘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이 검사원이 되여 자기가 짠 천을 검사하고 결함을 고치고 있답니다.

하루는 백 학자 누나가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수리공들이 기계에 기름을 치다가 실수해서 실오리들에 기름 묻은 손'자국을 내지 않았겠어요.

학자 누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나의 옷감에 기름이 묻어 있다면 나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는가 그런데 더구나 인민들에게 보낼 옷감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안된다.》

학자 누나는 곧 자기 손으로 손수건을 만들어다 기계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누구던지 언제나 손을 씻을 수 있게 말이지요.

학자 누나 뿐만 아니라 천을 짜는 누나들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짜는 천을 한번 더 보며 곱고 흠 없는 천을 짜기에 있는 성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짬만 있으면 상점에 나가 인민들이 어떤 천을 더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군 한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마음에 맞는 천을 더 많이 짜 내기에 있는 힘을 다 하지요. 이제 우리는 머지 않아 세계 제 1 등급의 우리의 비날론 공장에서 나오는 비날론 실로 양복지, 외투지, 각가지 천들을 짜게 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비날론 천을 짤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동무들이 우리들 손으로 짠 비날론 천으로 교복을 해 입고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 자라는 행복을 자랑하며 학교로 갈 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로동당 시대의 방직공이 된 행복을 더 크게 느낍니다.

올해 우리 나라의 많은 방직 공장들과 함께 2억 5천만 메터의 직물 고지 점령에 나선 우리 공장에서는 7천 8백만 메터의 옷감을 짜낼 과업을 맡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과해서 9천만 메터 이상의 천을 짜낼 작정입니다.

그럼 다음은 완성 직장으로 가 봅시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개들이 하늘 높이 비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천 무지개는 우리 공장 뿐만 아니라 구성 방직 공장, 신의주 방직 공장, 녕변 견직물 공장, 박천 직물 공장, 개성 직물 공장을 비롯한 큰 공장들과 전국 각지 지방 산업 공장들에도 하늘 높이 비꼈습니다. 그러니 2억 5천만 메터의 직물 고지는 문제 없지요.

소년단원 동무들! 금년에 우리는 2억 5천만 메터의 직물 고지를 점령하면 한 사람 앞에 25 메터의 천이 차례지게 되며 머지 않아 7 개년 계획을 수행하면 1 년에 5억 메터를 짜서 한 사람 앞에 50 메터의 천이 차례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휘황한 일입니까 그때에 가면 정말 우리는 더욱 남부럽잖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분단 위원회에서 맡은 일

—평북 구성군 성남 중학교 단 33분단 (인민반 3학년) 강 원 순 동무에 대한 이야기—

손 병도　　　그림 남 현주

1961년 4월 어느 날이였다.

《할 수 있을가? 락제생을 최우등으로…》

혼자 중얼 거리며 교실에서 나오는 강 원순 동무는 분단 위원회에서 김 동무의 학습을 도와 최우등생으로 끌어 올릴 것을 분공 받았던 것이다.

반장으로서 언제나 소년단 생활에 충실하며 조직에서 맡은 일이라면 어겨 본 일이 없는 그는 이 날도 집에 돌아 오자마자 소년 신문과 소년단 잡지를 뒤져 가며 모범 분단 동무들의 사업 경험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분단에서 맡은 과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 내리라고 굳게 마음 다지였다.

☆ 5리'길을 하루 같이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 온 원순이는 저녁밥을 치르기가 바쁘게 5리 언덕'길을 넘어 김 동무네 집을 찾아 갔다.

그러나 아침에 학교에 간다고 나갔다는 김 동무는 그 때까지도 집에 돌아 오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에도 안 나오고 또 어델 갔을가?)

며칠을 두고 찾아 다녀도 도무지 만날 수 없으니 원순이는 공연한 일을 맡은 것만 같았다. 마음 속으로는 김 동무가 얄밉게도 생각되였다. (어떻게 할가?)

원순이는 분단 위원장을 찾아 갔다.

《그 애는 아무리 찾아 다녀도 만날 수 없는데 뭐.》하고 난처한듯 이야기하였다. 《있으면서도 대답 안 하는게 아닐가? 그리고 또 찾으려 올가봐 미리 뺑소니 치는지도 모르지. 아침 일찌기 찾아가 봐》

다음 날 원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 나자'바람으로 찾아 갔다.

문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대답이 없었다. 이 때 마침 부엌에서 《얘야 밖에 누가 와서 찾는구나》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났다. 그제야 문이 열리더니 그가 찌뿌둥해서 나왔다.

《너 왜 자꾸 찾으려 오니… 칭찬 받을가 해서 그러지?》하고 눈알을 한번 흘기고는 들어가 버렸다.

하도 어이가 없고 분해서 그길로 되돌아선 원순이는 단숨에 학교로 달려 갔다. (내가 무엇이 안타까와 그 애한테 미움을 받으면서 도와 주겠니…)

《선생님, 난 그 애를 못 맡겠어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원순이는 분한 생각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원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린듯이 《울지 말어, 원순이가 그런 어려운 일을 해 낼 수 있으리라고 분단 위원회가 믿고 맡긴 일인데. 원순이는 아동단원들이 조직에서 맡은 일을 어떻게 해 냈는가를 알고 있지? 우리가 말로만 본 받는다고 해서야 쓰나, 어려운 일에 부닥칠수록 더 용기를 내고 또 동무들의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지, 어디 한 번 분단 위원회에서 의논해 보자우.》

선생님의 말씀을 듣던 원순이는 부끄러운듯 돌아서서 눈물을 씻고 직원실을 나왔다. (하긴 그래, 난 아직 애도 써 보지 않고…)

이 날 분단 위원회에서는 원순이에게서 김 동무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김 동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토의 하였다. 분단 위원들은 김 동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좋아 하는가를 알아보고 반 동무들과 함께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도와 주며 그가 좋아하는 일을 자주 조직 해 주어 우선 반 동무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들 말하였다.

이튿날 아침 원순이는 반 모임을 열고 분단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반 동무들에게 알려 주었다. 반 동무들은 모두 분단 위원회에서 토의된 대로 꼭 해 보자고 하였다.

《그럼 우리 그 애네 집에다 반실을 정하고 그애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 보자.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잘 돕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잘 조직해서 반 생활에 열성을 내게 하자.》 원순이는 이렇게 반 동무들과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이 날 반 동무들은 김 동무 어머니를 찾아 가 의논하고 반실을 김 동무네 집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저녁에 반실 꾸릴 차비를 해 가지고 반 동무들이 김 동무네 집으로 갔다. 그 날 저녁도 김 동무는 집에 없었다.

반 동무들은 김 동무 어머니의 도움까지 받아 아주 아담하게 반실을 꾸려 놓았다.

그러나 김 동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 오지 않았다. 반 동무들은 김 동무에게 주려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갔던 《혁명 전통 연구 수첩》과 《최우등 수첩》을 책상 우에 가지런히 놓고 돌아 왔다.

집에 돌아와 누운 원순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밖에선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데 갔을가? 지금쯤은 돌아 왔겠지. 그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가?) 이런 생각에 이르자 원순이는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벌컥 일어 났다. 옷장 안에서 비옷을 꺼내여 입기 시작했다.

《원순아 비가 오는 이 캄캄한 밤에 어델 가자고 그러냐?》.

《동무네 집에 갔다 오겠어요. 어머니 기다리지 마세요》.

원순이는 어느새 쏜살 같이 밖으로 내달렸다.

김 동무는 이 야밤에 비를 맞으며 찾아 온 원순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반 동무들이 꾸려 놓은 반실 장치를 뎌러 뜯어 버린 자기 행동이 부끄러웠다.

이날 밤 원순이는 최우등반의 영예를 지니자고 토의하던 반 모임의 이야기며 반 동무들이 서로 도우며 재미나게 반 사업을 해 나갈 가지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김 동무는 원순이가 다시 반실을 꾸리는 일을 부지런히 거들어 주었다.

밤이 깊어서 원순이가 집으로 돌아 가려할 때 김 동무는 원순이의 두 손을 잡고 기어이 자고 가야한다고 놓아 주질 않았다.

두 동무는 가지런히 이부자리에 누웠다. 원순이는 밤새껏 아동단원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 주었다. 그리고 동무들이 만들어 준《혁명 전통 연구 수첩》과《최우등 수첩》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이튿날 아침 반실에는 오래간만에 7 명의 반 동무들이 명랑한 얼굴로 한 자리에 모였다.

☆ 맡은 일은 끝까지

오후반이여서 반실에는 매일 오전에 모이군 하였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참가하는 반 생활은 날마다 달라졌다.

원순이는 김 동무의 학습을 힘껏 돕기 위해 저녁이면 개별적으로 찾아 가 그 날 배운 것을 가지고 같이 복습하였다.

김 동무는 공작과 도화에는 남달리 솜씨가 있었다. 집에 있는 벽시계며 스피카를 뜯어 놓고 맞춘다고 하면서 못쓰게 만들어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은 적도 한 두번이 아니였다. 또 작문도 다른 동무들한테 그리 뒤떨어진 편이 아니였다.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은 관계로 배우지 못하고 넘어 간 산수 문제들이 많았다. 그래서 김 동무는 산수에는 아주 뒤진 형편이였다.

원순이는 산수에 힘을 넣어 도와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무엇부터 배워 줘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먼저 그날 배운 문제를 그날에 다 풀어 주면서 비슷한 문제를 내서 혼자서 풀어 보게도 하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였다.

《원순아 쉬운 문제부터 배워 줘》.

김 동무의 이 말을 들은 원순이는 그날 배운 문제를 그날 다 알도록 도와야 겠다고 한 자기의 생각이 아직 김 동무에게는 이르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원순이는 김 동무와 함께 산'가치와 진달래 꽃무늬를 만들어 색칠까지 곱게 해 가지고 한 자리 수의 승법과 제법부터 가르쳐 주었다.

김 동무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성적이 점점 더 뒤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더 빨리 배우기 위해 애썼다.

이렇게 하여 그의 성적은 점점 올라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동무는 동무들과 놀다가 다리를 상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원순이는 매일 같이 병원에 찾아가 그의 병 문안도 하고 그 날 배운 문제를 가르쳐 주군 했다.

동무를 돕는 원순이의 아름다운 행동에 감동된 간호원 누나도 김 동무의 학습을 도와 주었다.

김 동무는 마침내 학기말에는 영예의 최우등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반은 분단에서 맨 처음으로 최우등 반의 영예를 지녔다.

원순이는 분단 위원회에서 맡은 김 동무의 학습을 도우면서도 언제나 반 모임을 가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매주 토요일이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주 사업을 총화하며 다음 주에 할 사업을 의논하고 분공하군 하였다.

원순이의 꾸준한 방조에 의해 김 동무를 비롯한 7 명의 반 동무들은 모두가 다 반 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반에서 준 분공을 어김 없이 실천하군 하였다.

원순 동무는 분단 위원회에서 맡겨 준 임무를 훌륭히 실천하였다.

오늘 3반 동무들의 경험은 이 학교 전체 분단들에 보급되여 최우등 반이 날로 늘어 가고 있으며 원순이네 분단은 마침내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였다.

체육에 대한 지식

현 수

현수는 철봉 운동에서 많이 실시하는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현수는 철봉에 매달려 팔을 굽혀 펴면서 하는 운동이므로 매달리는 힘을 발전시키며 팔의 근육들과 내장 기관들의 기능들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몸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면 현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요.

1). 철봉을 잡는 방법은 손 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엄지 손'가락을 철봉 아래로, 나머지 손'가락은 철봉 우로 손에 힘을 주어 잡아야 하며 두 팔 사이의 넓이는 자기 어깨의 너비와 같아야 합니다.

2). 현수를 할 때 팔을 굽히는 것은 천천히 하여야 하며 턱이 충분히 철봉 우에 올라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팔을 펴면서 본래의 자세로 돌아 와야 합니다. 현수를 할 때는 언제나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 팔에 다같이 힘을 주어야 합니다.

3). 팔 힘이 약한 동무들은 충분한 준비 운동을 잘 하여야 합니다. 준비 운동으로서는 팔을 세워 짚고 엎드려서 팔을 굽혀 펴기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차츰 회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넓이 뛰기

넓이 뛰기는 우리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넓이 뛰기는 빠른 속도와 강한 발 구르기를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다리의 근육이 발달되여야 합니다. 넓이 뛰기를 잘하려면 다음과 같은 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 준비 운동을 잘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리 운동을 잘 하여야 합니다.

2). 넓이 뛰기를 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는 거름 폭을 좁게하고 무릎을 높이 올리면서 빨리 달려야 합니다.

3). 달릴 때 자세는 처음에는 몸을 앞으로 굽히고 뛰다 차츰 일으키며 발 구르기 전보에서는 곧바로 이르켜야 합니다.

4). 반드시 넓이 뛰기 장소에는 모래나 톱밥을 깔아야 하며 그 두께는 30~50cm 정도가 좋습니다.

5). 의복과 신발은 운동하기에 간편하여야 합니다. 운동을 끝마친 후에는 반드시 정리 운동을 하되 호흡 운동을 꼭 하여야 합니다.

널 뛰기

널 뛰기는 신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널 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곧추 뛰기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곧추 뛰기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널 뛰기는 체중이 같은 두 동무가 올라 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균형을 잘 보장하고 뛸 수 있습니다.

널 뛰기를 할 때 몸의 자세는 허리를 약간 앞으로 굽히며 발 끝은 앞으로 숙이고 가슴은 약간 펴고 머리는 상대방 머리 우 정면을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팔은 좌우로 벌리며 들어 주거나 손을 교대하면서 한 손은 어깨 우에까지 올리고 한 손은 가슴 부분에 스칠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3).널 뛰기에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높이 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20cm, 다음에는 40cm, 다음에는 50cm, 정도로 차츰 높이 뛰는 것이 좋습니다.

4). 널 뛰기 운동은 보조 운동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와 허리의 힘을 기르기 위하여 손을 뒤짐 쥐고 다리 굽혀 펴기 또는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메고 다리 굽혀 펴기, 다리를 바꾸면서 한 발로 계단 뛰여 오르기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신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조 평행대 운동, 뛰여 오르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 바꾸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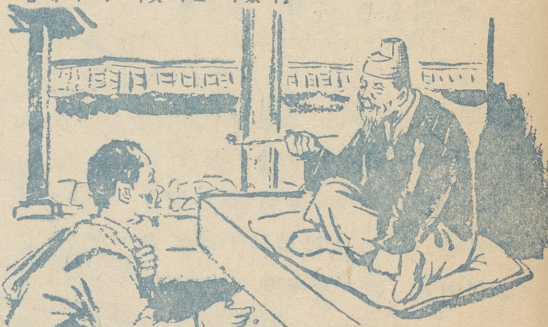
1).강원도 안변군 비산리에 무려 1만 5천 평이나 되는 큰 집터를 잡고 고성, 원산, 통천 지방을 가도 남의 땅을 밟지 않는다고 하던 간악한 지주 김 맹산이란 자가 있었다. 이 놈은 70~80 간 짜리나 되는 커다란 3개의 창고에다 해마다 농민들이 피땀으로 지은 쌀을 빼앗아 넣고 호강스럽게 살았다,

2).김 귀남이란 농민은 맹산이의 논 하루갈이 자갈 밭 2천 평을 얻어 부쳤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절반씩 나눠 먹게 되여 있었지만 지주놈은 갖은 방법으로 거의 다 빼앗아 갔다. 심지어 밭에 심은 잡곡, 소채 소작료마저 벼로만 받아냈다. 이리하여 뼈빠지게 지은 1 년 농사를 지주놈에게 다 빼앗기군 하였다.

3).어느 해 가을이였다. 김 귀남 농민은 열 다섯 말씩 넣은 벼 일곱 섬을 소작료로 가지고 지주놈을 찾아 갔다.

그런데 지주놈이 말박을 속여서 되는 바람에 한 섬이 열 말씩 밖에 안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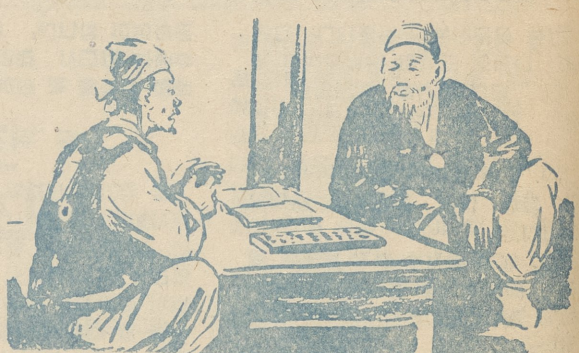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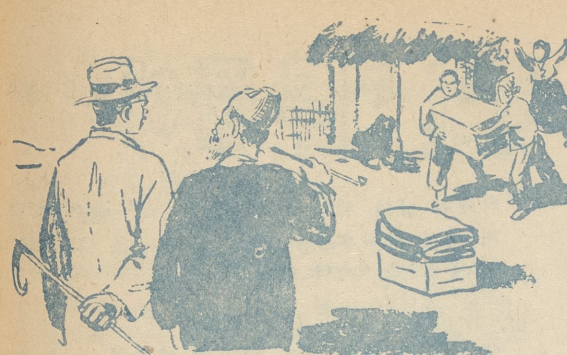
이렇게 말박을 속여 먹고도 귀남 농민이 말쟁이와 다퉜다는 구실로 소작 주었던 땅까지 몽땅 떼였다.

4).어린애가 다섯이나 있는 안 경삼 아저씨가 굶다 못하여 하루는 지주네 집에 쌀을 꾸려 갔다.

그러나 지주 놈은 꿔 줄 쌀이 없다고 딱 잘라맸다.

지주 놈은 농민들의 피땀을 긁어 모은 쌀이 창고 바닥에서 썩어나도 굶주리는 농민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5),경삼 아저씨는 술을 마시고 지주놈에게 찾아 가서 북바친 화풀이를 해댔다.

《이 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엉!》

그 때 왜놈 순사 부장과 술추렴을 하고 있던 그 놈은 순사 부장 놈과 함께 아저씨를 멍석에 강제로 눕혀 덜덜 말아 가지고 몽둥이로 사정 없이 때렸다. 아저씨는 드디여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주 놈은 이렇게 피땀을 짜낼대로 짜내고 나중에는 농민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6).리 봉기라는 농민은 이 지주놈의 논 하루갈이를 부쳤는데 해마다 보'물세를 지주와 절반씩 냈다. 어느 해인가 지주놈은 제가 먼저 물세를 몽땅 내고 봉기 농민에게 당장 물세 18 원을 내라고 독촉했다. 그래 돈이 없다고 사정하니 《그럼 나중에 물어도 좋네, 채용 증서(돈 꿔 쓴다는 문서)나 한장 쓰게,》하고 선심쓰듯 말했다. 그렇지만 지주놈의 속심은 딴 데 있었다.

7).봉기 농민은 인차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러자 지주 놈은 채용 증서를 가지고 군에 가서 봉기 농민의 집과 가구를 몽땅 팔아 먹었다.

간악한 지주놈은 농민들을 긁어 먹고 나중에는 이렇게 알몸'둥이로 내 쫓았다.

8),이 놈이 농민들을 긁어 먹은 것은 이것 뿐이 아니다. 한 번은 자기 환갑 날이 가까와 오자 수백 명 소작인들에게 미리 환갑 날을 알렸다. 농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돼지, 닭, 술, 물'고기 등을 바쳐야 했다. 그렇지 않다가는 당장 땅을 떼우는 판이였다.

맹산이란 놈은 소작인들께서 이렇게 받아 들인 물건들을 한 쪽으로는 창고에 넣고 또 한 쪽으로는 그 일부를 팔아서 돈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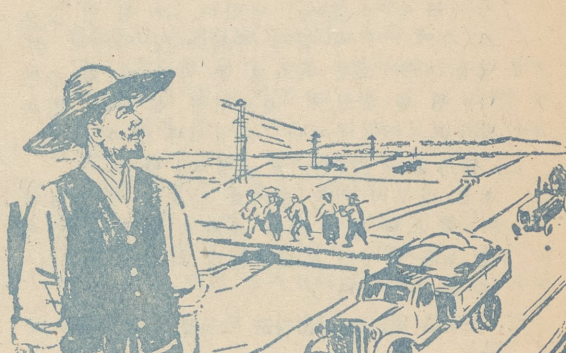
9).얼마 후 환갑 날이 왔다. 맹산이란 놈은 소작인들께서 받아 들인 물건으로 환갑 잔치를 차렸다.

그 놈은 군수와 경찰 서장 등 왜놈들과 진탕쳐 먹고 있었다. 놈들이 처먹는 음식은 그 대로 농민들의 피와 땀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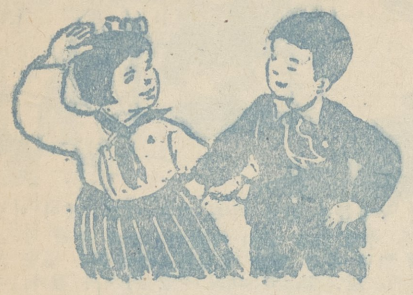
10),맹산이란 놈은 환갑 잔치 구경을 온 소작인들에게 지짐 한 쪼각 주지 않았다. 나중엔 시끄럽다고 사나운 개 두 마리를 풀어 놓아서 소작인들을 사정 없이 물어 뜯게 하고는 그것을 바라보며 너털 웃음을 웃어 댔다.

11).사람 대우를 못 받고 개에게까지 물린 농민들은 참을 수 없었다. 농민들은 몽둥이와 돌맹이를 들고 밀려 들었다. 누군가가 지주에게 돌을 던졌다.

지주 놈은 <악>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놈들은 권총을 빼들고 위협했으나 분이 터진 농민들은 겁내지 않았다. 성난 사자 같이 달려 들어 잔치 상을 뒤집어 엎고 군수와 경찰 서장 놈을 비롯한 왜놈들을 때려 눕혔다. 그 후 놈들의 세상은 오래 못 가고 드디여 끝장이 나고야 말았다.

12),이것은 안변'벌의 눈물 겨운 옛 이야기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난 날 피눈물로 땅을 적시던 이 곳 농민들은 오늘 기계로 농사 짓는 협동벌의 행복한 주인이 되였다.

지금 안변'벌—넓은 벌에는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군중 무용

소년단원의 의무 풀이

이 무용은 소년단원의 의무 풀이 노래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노래는 소년 신문 1961년 5월 24일 호에 있음)

제 1 절 도해

■…남자 ○…녀자

ㄱ, 하나라면 한 마음(2 소절=4 박자)

오른 발부터 곱딛어 걷기(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투스텝》을 말한다.)로 한 번 앞으로 가며 이 때 팔의 자세는 첫 박자에 손'벽을 비껴 오른 쪽으로 두 박자 간 쳐 올린다. 왼 발 곱딛어 걸으면서 손'벽을 반대 방향으로 쳐 올린다. (그림 1과 같다.)

ㄴ, 붉게 붉게 타지요. (2 소절=4 박자)

오른 발부터 거퍼 뛰기로 앞으로 전진하며 이 때 오른 팔은 우로 올리고 왼 팔은 밑에서 오른 쪽부터 자연스럽게 좌우로 흔든다. (그림 2와 같다.)

ㄷ,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들(4 소절=8 박자)

첫 절 ㄱ, ㄴ을 다시 한 번 반복한다. 다만 마지막 박자에 남녀 서로 마주 본다.

△ 후렴 .

ㄹ, 옳다 옳다 로동당(2 소절=4 박자)

《옳다 옳다》 남녀 서로 첫 박자에 오른 발 오른 쪽 옆으로 이동하며 둘째 박자에 왼 발을 오른 발에 모으며 땅을 구른다. 이 때 팔의 자세는 남녀 서로 오른 쪽 귀 높이에서 손'벽 쳐 비껴 사선으로 편다.

《로동당》은 《옳다 옳다》와 같은 동작을 반대로(그림 3)

ㅁ, 기'발 따라 나가니(2 소절=4 박자)

남녀 서로 마주 보며 남자는 녀자의 오른 쪽으로, 녀자는 남자의 오른 쪽으로 곱딛어 걷기하면서 자리를 서로 바꾼다. 이 때 팔은 남녀 서로 오른 팔을, 남자는 녀자의 오른 쪽 어깨에, 녀자는 남자의 오른 쪽 어깨에 올리고 왼 팔은 두 박자 동안 메였다가 두 박자 동안에 옆으로 내린다.

이리하여 남자는 원 밖으로 나간다. (그림 4와 같다.)

ㅂ, 이는야 소년단원(2 소절=4 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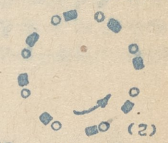
남녀 서로 마주 보고 《옳다 옳다 로동당》의 동작을 다시 한 번 반복한다.

ㅅ, 우리의 의무다(2 소절=4 박자)

남자는 녀자의 오른 쪽으로, 녀자는 남자의 오른 쪽으로 보통 걷기(이는 보통 우리들이 걸어 가는 것을 박자에 맞게 률동화한 것이다.) 네 번 하여 처음 시작하던 한 개 원을 이루게 된다.

※ 제 1 절 후렴은 앞으로 3 절, 5 절, 7 절, 9절 즉 기수로 된 절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제 2 절

도해

ㄱ, 둘이라면 둘도 없는(2 소절=4 박자)

1 절 부분과 같이 시계 바늘 돌아 가는 반대 방향으로 곱딛어 걷기로 두 번 앞으로 간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첫 두 박자 동안에 두 팔 우로 멘다. 두 번째 두 박자 동안에 아래로 내린다. (그림 5와 같다.)

ㄴ, 공산주의 새 세상(2 소절=4 박자)

거퍼 뛰기(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스킾》을 말한다.) 네 번 앞으로 전진하며 이 때 팔의 자세는 두 팔 우로 올리고 오른 쪽부터 좌우로 네 번 흔든다. (그림 6과 같다.)

ㄷ, 그 날 위해 학습하며 과학 기술 배운다 (4소절=8박자)

ㄱ, ㄴ을 그 대로 반복한다. 다만 마지막에 남녀 서로 마주 보게 된다.

△ 후렴

ㄹ, 옳다 옳다 우리는 (2 소절=4 박자)

첫 박자에 왼 발 들면서 제 자리에서 오른 발로 한 번 뛴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손'벽을 앞에서 치며 왼 팔은 메고 오른 팔은 편다. (그림 7과 같다)

《우리는》 첫 박자에 오른 발을 들면서 왼 발 제자리에서 한 번 뛴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손'벽을 치면서 왼 쪽으로 펴게 된다. (그림 8과 같다.)

ㅁ, 문예 활동 잘하니 (2 소절=4 박자)

남녀 서로 오른 쪽 방향으로 네 번 거퍼 뛰여 자리를 서로 바꾼다. 이때 팔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우로부터 좌우로 흔들며 간다.

ㅂ, 이는야 소년단원(2 소절=4 박자)

교차했을 때는 남자는 원 밖으로 보게 되며 녀자는 원 안으로 보게 된다. 남녀 첫 박자에 오른 발 오른 쪽 옆으로 한 발 이동하며 왼 발 땅을 구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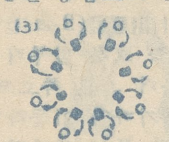
이 때 팔의 자세는 첫 박자에 주먹을 쥐고 남녀 서로 어깨 뒤에다 사선으로 팔을 올린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왼 발 옆으로 내딛으며 오른 발 구르며, 이 때 팔의 자세는 두 팔 왼쪽으로 펴며 올린다. (그림 9와 같다)

ㅅ, 우리의 의무다(2 소절=4 박자)

남녀 서로 오른 쪽 방향으로 네 번 보통 걷기 하며 자리 바꾼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흔든다. 이리하여 남자는 원 안으로 들어 온다.

※ 제 2 절 후렴은 앞으로 4 절, 6 절, 8 절, 10 절 즉 우수의 절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제 3 절

도해

ㄱ, 셋이라면 세계를 (2 소절=4 박자)

남녀 서로 오른 쪽 팔을 높이 잡고 곱딛어 걷기 두 번하며 남자는 녀자의 왼 쪽으로 녀자는 남자의 오른 쪽으로 돈다. 이 때 남녀 왼 쪽 팔은 안으로 한 번 바깥으로 한 번 휘감는다. 이리하여 남녀 서로 자리를 바꾼다. (그림 10과 같다)

ㄴ, 마치 낮이 꾸린다(2 소절=4 박자)

거퍼 뛰기 네 번 전진하여 남자는 원 안으로 다시 들어 오고 녀자는 원 밖으로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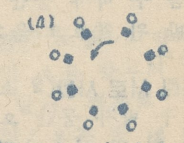
ㄷ, 로동을 즐기며 사회주의 돕는다(4 절=8 박자)

ㄱ, ㄴ과 똑 같은 동작을 왼 발부터 반대 방향으로 시작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남녀 왼 팔을 우로 잡게 된다.

△ 후렴 : 제 1 절 후렴과 같다.

다만 《우리의 의무다》에서 남자는 원 안으로 녀자는 바깥으로 원을 이루게 된다.

제 4 절

도해

ㄱ, 넷이라면 예로부터(2 소절=4 박자)

남녀 서로 시계 바늘 돌아 가는 반대 방향으로 곱딛어 걷기로 오른 발부터 두 번 앞으로 전진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오른 발 나갈 때 오른 쪽으로, 왼 발 나갈 때 왼 쪽으로 씩씩하게 좌우로 흔든다. (그림 11과 같다)

ㄴ, 건강이 으뜸(2 소절=4 박자)

남녀 거퍼 뛰여 가기 네 번 앞으로 전진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흔든다.

ㄷ, 튼튼하고 씩씩하게(2 소절=4 박자)

남녀 곱딛어 걷기 오른 발부터 두 번 전진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오른 발 나갈 때 두 주먹을 쥐고 두 팔 우로 메였다 왼 발 나갈 때 우로 다시 펴며 밑으로 내린다.

ㄹ, 신체를 단련(2 소절=4 박자)

남녀 보통 걷기 네 번 앞으로 전진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두 발'자국 앞으로 나갈 때 두 팔 우로 펴며 올리였다가 다음 두 발'자국

(5) (6) (7)

나갈 때 밑으로 내려 온다.(그림 12와 같다)

△ 후렴; 제 2 절 후렴 부분을 반복하는데 《우리의 의무다》에서 남자는 녀자의 오른 쪽으로 와서 다 같이 안으로 향하여 한 개 원이 된다.

(5)

제 5 절

도해

ㄱ, 다섯이라면 다 같이(2 소절=4 박자)

한 개 원으로 되여 전부 안으로 보고 오른 발부터 안으로 들어 가며 곱딛어 걷기 두 번 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전부 서로 손목 잡고 우로 한 번 올렸다 아래로 내린다.(그림 12 참고)

ㄴ, 집단에 뭉치여(2 소절=4 박자)

처음 두 박자 동안 팔 우로 올리고 오른 발 오른 쪽으로 옮겨 딛으면서 왼 발 땅을 구른다. 다음 두 박자 동안 팔은 올린 그 자세에서 왼 발 왼 쪽으로 옮겨 딛으며 오른 발 땅을 구른다.

ㄷ, 동무끼린 서로 사랑(2 소절=4 박자)

처음 두 박자 동안 오른 발부터 곱딛어 걷기 뒤로 한 번 나오며 팔은 아래로 내린다.

다음 두 박자 동안 왼 발 곱딛어 걷기 다시 한 번 나오며 두 팔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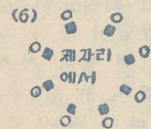
ㄷ, 어른들껜 존경(2 소절=4 박자)

처음 두 박자 동안 팔 우로 올리고 오른 발 오른 쪽으로 옮겨 딛으며 왼 발 구른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우로 올린다. 다음 두 박자 동안 팔 그 대로 올린 자세에서 왼 발 왼 쪽으로 옮겨 딛으며 오른 발 구른다.

△ 후렴; 제 1 절 후렴을 반복하되 마지막에는 남자가 원 안으로 들어 가 두 개 원으로 되여 남녀 서로 마주 본다.

(6) 제자리에서

제 6 절

도해

ㄱ, 여섯이라면 여러 동무(2 소절=4 박자)

남녀 서로 마주 보고 서로 손목 잡고 남자는 오른 발부터 녀자는 왼 발부터 제 자리에서 첫 박자에 한 발'자국 옆으로 이동하며 둘째 박자에 다시 반대 발 딛고 셋째 박자에 남자는 오른 발 녀자는 왼 발 딛고 네째 박자에 남자는 왼 발, 녀자는 오른 발 땅을 구른다.(그림 13과 같다)

ㄴ, 다 같이 정직(2 소절=4 박자)

ㄱ과 같은 동작을 반대로 반복한다.

ㄷ, 좋은 것은 따르며(2 소절=4 박자)

녀자는 뒤'걸음질 하며 왼 발부터 곱딛어 걷기 두 번 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두 팔 우로 올리고 왼 쪽부터 좌우로 두 번 흔든다.

남자는 녀자를 따라 가며 오른 발부터 곱딛어 걷기 두 번 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오른 쪽으로부터 두 번 밑에서 좌우로 흔든다.(그림 14와 같다)

ㄹ, 나쁜 것은 버린다(2 소절=4 박자)

ㄷ을 반복하되 남자가 뒤'걸음질 하고 녀자가 따라 온다. 남자는 두 팔 올리고 녀자는 두 팔 내린다.

△ 후렴; 제 2 절 후렴을 반복하여 계속 남자는 원 안으로 들어 와 바깥으로 보게 된다. 녀자는 원 밖에서 서로 마주 보게 된다.

제 7 절

도해(제 6 절과 같다.)

ㄱ, 일곱이면 일상 생활(2 소절=4 박자)

남자 서로 마주 보고 첫 박자에 남자는 오른 발, 녀자는 왼 발 앞으로 내 딛으며 둘째 박자에 서로 굴신을 주면서 남자는 왼 발을 오른 발 앞에 점을 찍으며 녀자도 오른 발을 왼 발 앞에 점을 찍는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서로 마주 보며 자기 몸 앞에서 손'벽 친다.

셋째 박자에 남자는 왼 발, 녀자는 오른 발 뒤로 내 딛으며 넷째 박자에 굴신을 주면서 남자는 오른 발을 왼 발 앞에 점을 찍으며 녀자도 왼 발을 오른 발 앞에 점을 찍는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서로 마주 보고 뒤에서 손'벽 친다.(그림 15와 같다)

ㄴ, 자기 몸을 거두며(2 소절=4 박자)

남자는 오른 발부터 오른 쪽으로, 녀자는 왼 발로부터 왼 쪽으로 각각 제자리에서 곱딛어 걷기 두 번 하며 돈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첫 두 박자에 남자는 왼 발, 녀자는 오른 팔 가슴 앞에 자기 몸을 가리키듯 올리고 다음 두 박자에 남자는 오른 팔, 녀자는 왼 팔을 올리며 마지막에 서로 마주 본다.

ㄷ, 학교와 마을을(2 소절=4 박자)

남자는 오른 발부터 오른 쪽으로 녀자도 오른 발부터 오른 쪽으로 옆으로 세 박자 동안 보통 걷기하여 이동하며 네 박자만에 남녀 서로 왼 발 들고 제자리에서 오른 발로 한 번 뛴다. 이 때 팔의 자세는 남녀 서로 두 박자 동안 두 팔을 자기 몸 앞에서 한 번 돌리고 다음 두 박자 동안 오른 쪽으로 편다.(그림 16과 같다)

ㄹ, 아름답게 꾸린다(2 소절=4 박자)

ㄷ과 같은 동작을 반대로 반복하여 서로 마주 본다.

△ 후렴; 제 1 절 후렴을 반복하며 계속 남자가 원 안으로 서게 된다.

제 8 절

ㄱ, 여덟이라면 여러 가지(2 소절=4 박자)

시계 바늘 돌아 가는 반대 방향으로 전진하며 남자는 오른 발부터 오른 쪽으로, 녀자의 뒤로 비껴 사선으로 세 번 걸어가 네 번째만에 땅을 구르며, 녀자는 왼 발부터 왼 쪽으로 남자의 앞 비껴 사선으로 세 번 걸어가 오른 발 구른다. 이 때 팔의 자세는 남자는 오른 팔 메고 왼 팔 앞으로 감고 녀자는 왼 팔 메고 오른 팔 앞으로 감는다.(그림 17과 같다.)

ㄴ, 소년단 사업에(2 소절=4 박자)

ㄱ과 같은 동작을 반대로 반복한다.

ㄷ, 한결같은 지혜와(2 소절=4 박자)

남자는 오른 팔, 녀자는 왼 팔 머리 우에서 서로 잡고 서로 제자리에서 머물러 걸으며 녀자가 오른 쪽 안으로 돈다. 이 때 오른 팔은 아래 우로 네 번 자연스럽게 흔든다.(그림 18과 같다.)

ㄹ, 열성을 받친다(2 소절=4 박자)

ㄷ과 같은 동작을 남자가 오른 쪽 안으로 돌며 반복한다.

△ 후렴; 제 2 절 후렴을 반복하되 계속 남자는 안원으로 서게 된다.

제 9 절

ㄱ, 아홉이면 아래'반(2 소절=4 박자)

계속 시계 바늘 돌아 가는 반대 방향으로 녀자는 오른 팔 메고 왼 팔 펴고 남자의 오른 팔은 녀자의 오른 팔을 쥐고 왼 팔은 녀자의 왼 팔을 쥐고 오른 발부터 곱딛어 걷기 두 번 앞으로 전진한다.(그림 19와 같다.)

ㄴ, 나어린 동생들(2 소절=4 박자)

오른 발부터 거퍼 뛰기 하면서 네 번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마지막 박자에 남자가 녀자를 오른 쪽으로 돌리여 손 잡은 것을 놓으며 서로 마주 본다.

ㄷ, 언제나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4 소절=4 박자)

남녀 서로 오른 발부터 남자는 녀자의 왼 쪽으로, 녀자는 남자의 오른 쪽으로, 네 번 곱딛어 걷기로 한 바퀴 돈다. 이 때 팔의 자세는 남녀 서로 두 팔 오른 쪽 어깨 높이 우로 올리고 손목 서로 잡고 다정하게 돈다.

△ 후렴; 제 1 절 후렴을 반복하여 계속 남자는 안 원으로 서게 된다.

제 10 절

ㄱ, 열이라면 열백 번(2 소절=4 박자)

시계 바늘 돌아 가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 발부터 남녀 같이 곱딛어 걷기 두 번 전진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오른 발 나갈 때 오른 쪽으로, 왼 발 나갈 때 왼 쪽으로 올린다.(그림 11 참고)

ㄴ, 지켜 나갈 내 나라(2 소절=4 박자)

첫 두 박자 동안 오른 발부터 보통 걷기 두 번 나가고 이 때 팔은 좌우로 두 번 흔들고 다음 두 박자 동안 오른 발 내 딛으며 곱딛어 걷기 한 번 한다. 팔은 오른 쪽으로 올라 간다.

ㄷ, 사회주의 해치려는(2 소절=4 박자)

왼 발부터 남녀 곱딛어 걷기 두 번 하며 앞으로 전진한다. 팔의 자세는 왼 쪽부터 올라 간다.

ㄹ, 미제 원쑤를 증오한다(2 소절=4 박자)

남녀 같이 왼 발부터 보통 걷기 네 번 앞으로 전진한다. 이 때 팔의 자세는 오른 팔 메고 왼 팔 펴고 전진한다.(그림 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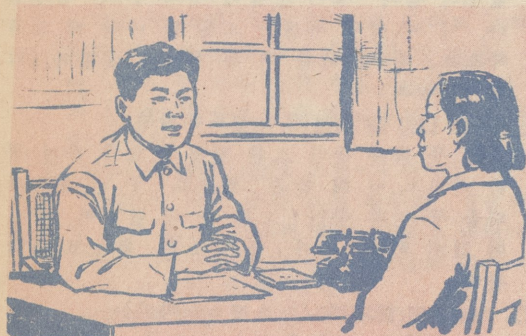
△ 후렴; 제 2 절 후렴 부분을 반복하여 남자가 녀자의 뒤에 서게 되며 처음 군중 무용을 시작하든 대로 돌아 간다.

용감한 바다의 딸

—룡암포 수산 사업소 기계 안강망 3호 선장 로력 영웅 장 금실 누나에 대한 이야기—

그림 남현주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장 금실 누나는 3 년 전까지만 하여도 단발 머리 중학생이였다. 그러던 그가 오늘은 용감한 녀성호 선장으로서 불과 30 마력 짜리 안강망선을 가지고 먼 바다까지 나가 공해를 개척하는 위훈을세우고 지난 2월 전국 수산 부문 열성자 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대회에서 김 일성 원수님은 금실 누나를 우리 당의 가장 모범적인 딸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1) 초중을 갓 졸업한 금실 누나는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바다로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누나는 매일 같이 수산 사업소 당 위원장 선생님께 찾아 가 졸라대기 시작하였다.

조그마한 단발 머리 처녀라고 몇 번이고 거절하던 당 위원장 선생님도 누나의 굽힐 줄 모르는 결의를 꺾지 못하였다. 누나는 끝내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야 말았다.

(2) 누나는 처음 운반선에서 식사를 보장하는 일을 맡아하게 되였다.

그러나 꼭 어로공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누나는 짬을 타서는 배를 운전하는 방법, 그물을 치는 방법 등 바다'일을 하나 하나 배우는 데 열성을 기울였다.

(3) 바로 이 때 남포 수산 사업소에 오시였던 김 일성 원수님께서 녀성들도 기술을 배워 선장도 되고 기관장도 되라고 하신 교시를 전달 받았다.

(우리 처녀들로 녀성호를 조직할 수 있지 않는가)

누나는 곧 당 위원회에 제의했다. 이리하여 금실 누나를 선장으로 하는 8 명의 처녀들로 녀성호가 처음 조직되였다. 그들은 30 마력 짜리 안강망 선을 받았다.

(4) 지난 해 2월 초순, 녀성호는 얼음'장을 까헤치며 첫 고기 잡이에 나갔다. 올라 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일부 사람들은 뒤에서 비웃었다.

그러나 누나는 배멀미가 날 때마다 (바다를 정복하자면 이쯤이야) 하며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닻을 내리는 법, 그물 치는 법, 항해법 등 어로 기술을 빨리 배우기 위하여 모든 정열을 쏟아 부었다.

(5) 힘에 겨운 곤난이 부닥칠 때마다 금실 누나는 《돈화의 수림 속에서》, 《하나로 뭉친 힘》 등 제목으로 갑판 우에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모임을 가지고 젊은 처녀들의 심장 속에 새로운 불'길을 일궈 주었다.

(6) 조기잡이가 닥쳐 왔을 때였다.

사업소에서는 해주 앞 바다의 조기를 마주 나가 잡아 들이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동무들이야 어떻게 험한 임당수 물'결을 헤치고 나가겠소, 평북 앞 바다에 들어 오는 조기나 잡으시요.》 하며 녀성호만은 내보내며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건 우리도 나가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금실 누나는 끝내 다른 어선 들에 경쟁을 호소하고 앞장 서서 나갔다.

(7) 해주 앞 바다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세찬 바람이 일면서 소낙비가 억수로 퍼붓기 시작하였다. 다른 배들은 대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나는 끄덕 안하고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끝내 욱실거리는 그물을 끌어 올리고야 말았다. 계속 이렇게 투쟁하여 누나는 년간 계획을 6월 말까지 129%로 넘쳐 실행하였다.

(8) 년간 계획을 완수한 날, 바다 우에서는 당 총회가 열렸다, 여기서 금실 누나는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후보당원으로 입당하였다.

이 날 밤 누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당원! 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가! 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물과 불 속이라도 뛰여 들리라 이리하여 당과 원수님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에 기어이 보답하리라) 누나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깊이 다지고 또 다지였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해양국입니다.

바다에는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광활한 바다를 정복하며 풍부한 바다의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해양국에 사는 우리 인민들의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이라고 하시면서 바다를 잘 알아야 바다에 있는 무진장한 자원을 마음 대로 걷어 들일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들은 푸른 바다의 주인들입니다. 우리는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바다에 대한 지식을 넓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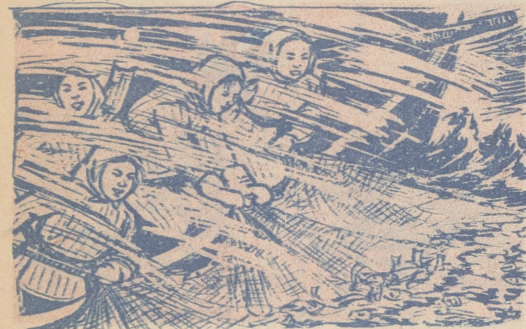
바다는 얼마나 넓고 깊은가?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의 면적은 약 5억 1천만 km^2 이다. 그 중 륙지의 면적은 겨우 1억 4천 9백만 km^2 (29 %) 밖에 안 되고 바다가 3억 6천 1백만 km^2(71 %)나 된다. 그러니 바다의 면적은 륙지 면적의 약

(9) 올해 수산물 80만 톤 고지를 점령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은 금실 누나는 품 속에 귀중히 보관한 후보 당원증을 어루 만지며 안강망선으로 먼 바다를 개척할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다.

100 마력 짜리 저예망선도 견디기 힘든 먼 바다에 나가기 위하여 누나는 녀성호 선원들과 무릎을 맞대고 며칠씩이나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누나의 결심은 이루어졌다.

(10) 지난 해 11월 14일 금실 누나는 녀성호 선원들과 함께 혁명 가요 소리 높이 부르며 부두를 떠났다.

이틀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금실 누나는 거기서도 성이 차지 않아 그 날 밤으로 20 마일이나 더 멀리 배를 내 몰았다. 과연 먼 바다에는 수심이 깊어 잔잔한 날에도 배가 뒤흔들리고 바람이 일면 산 같은 파도가 앞을 가로 막았다.

(11) 단숨에 배를 삼킬듯한 파도가 달려 들었다. 갑판 우에 그 대로 서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금실 누나는 허리에 바'줄을 매고 동무들의 앞장에 섰다. 그리고 가슴을 조이며 그물을 끌어 올렸다. 연해에서는 볼 수 없는 500 kg의 물'고기가 푸들거리며 따라 올랐다. 갑판 우에서는 환성이 터졌다.

(12) 이렇게 용감한 누나는 파도와 싸우며 먼 공해로 나가 욱실거리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수산물 80만 톤 고지 우에 붉은 기 휘날리게 할 그날을 눈 앞에 그리며 금실 누나는 오늘도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금실 누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로력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2.5 배나 된다.

세계의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 m이다. 그런데 륙지의 평균 높이는 840 m 밖에 안 된다.

바다에는 약 15만 종 이상의 동물과 10만 종 이상의 식물이 살고 있다.

우리 나라를 들러 싸고 있는 바다들의 넓이와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

동해의 넓이는 100만 km^2이고 수심은 대부분이 1000 m 이상이며 가장 깊은 곳은 4,226 m이다. 그리고 평균 깊이는 1,700 m이다. 동해에는 고래, 곱등어, 명태, 고등어 등을 비롯하여 520 여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서해의 넓이는 52만 km^2이고 평균 깊이는 44 m 정도이다. 서해에는 수심이 100m를 넘는 곳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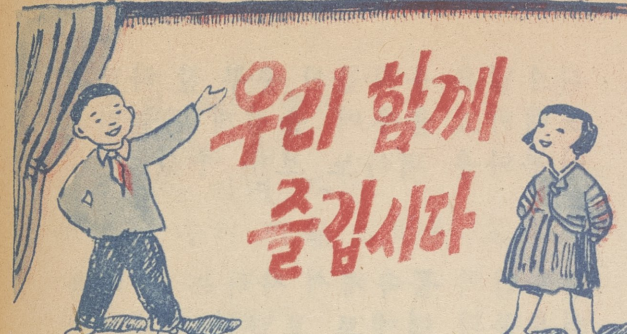
서해에서는 조개를 비롯하여 갈치, 복아지, 까나리 등 물'고기들이 많이 난다.

남해는 수심이 대체로 120m 미만이고 가장 깊은 곳은 167 m이다. 남해에는 크고 작은 섬이 2,100 여개나 있다. 남해에서도 도미, 고등어, 멸치, 삼치, 대구 등을 비롯하여 많은 물'고기들이 난다.

해류란 어떤 것인가?

해류라는 것은 바다'물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쉬지 않고 계속 흘러 가는 현상을 말한다.

해류가 일어 나는 원인은

첫째로 바다 우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불면

우리 함께 즐깁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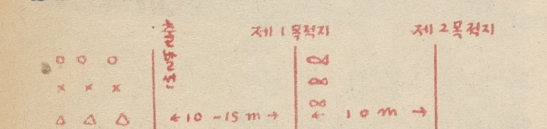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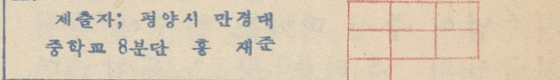
1. 유희 조직
   ①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네편으로 나눈다.
   ② 나무로 만든 고기 4개 낚시 4개를 준비한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①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② 유희자들은 고기 있는 쪽을 향하여 4렬 종대로 정렬한다.
3. 유희 방법
   ① 지도자의 출발 신호에 의하여 낚시'대를 가지고 고기 있는 쪽 제1 목적지로 달려 간다.
   ② 낚시로 고기 입에 달린 쇠고리를 껴 들어 제 2 목적지로 달려 간다.
   ③. 제 1 목적지에서 가져 간 고기를 제2 목적지에 놓고 낚시'대만을 가지고 돌아 와서 자기 편 맨 앞 동무에게 낚시'대를 넘겨 준다.
   ④ 낚시'대를 받은 동무는 제2 목적지의 고기를 낚시'대에 꿰여 제1 목적지에 날라다 놓는다.
   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서 반복하여 빨리 끝난 편이 승리한다.
4. 주의할 점
   ① 고기 입에 달린 쇠고리, 낚시등을 크게 만들것.
   ② 고기 입에 달린 쇠고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놓을 것.
   ③ 낚시'대는 반드시 출발선에서 주고 받을 것.

1. 오락 조직
   1. 짧은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어데서나 할 수 있다.
   2. 인원은 보통 8~10 명 정도가 좋다.
2. 오락 방법
   ㄱ. 오락 참가자들은 원을 지어 앉고 그 중 한 사람을 선발하여 원의 중심에 앉게 한다.(그림과 같다)
   ㄴ. 나머지 원을 지은 동무들 중에서 지휘자를 한 명 선발해야 하며 이 지휘자는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몰라야 한다.
   ㄷ. 오락이 시작되면 유희자들은 혁명가요를 부르면서 총을 메는 동작, 기'발 휘날리는 동작, 경례 등 동작을 지휘자가 하는 대로 따라 하게 된다.
   ㄹ. 중심에 있는 사람은 누가 지휘자인가를 찾아 내야 한다.
   ㅁ. 노래가 두 번 반복될 때까지 지휘자를 찾아 내지 못하면 동무들이 요구하는 대로 노래, 춤, 수수께끼 등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지휘하던 동무가 중심에 들어 가 앉는다.
   ㅂ. 지휘자를 찾아 내였을 때에는 지휘자와 자리를 바꾸고 다시 시작한다.
3. 주의할 점
   ㄱ. 유희 도중에 지휘자를 마음 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ㄴ. 지휘자는 중심에 앉은 동무가 알아 차리지 못하도록 재빨리 동작하여야 한다.
   ㄷ. 지휘자를 선발할 때 중심에 앉은 동무는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림.

※ 이 오락은 바깥에서 원을 지어 행진하면서도 할 수 있다.

여기에 길이가 꼭 같은 막대기 20개로 7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느 세 개의 막대기만을 움직여서 5 개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제출자; 평양시 만경대 중학교 8분단 홍 재준

공기와 바다'물과의 마찰에 의하여 처음에는 바다 표면의 물이 흘러 가게 되고 차츰 표면의 물과 속 물과의 마찰에 의하여 일정한 두터이를 가진 물 층이 흐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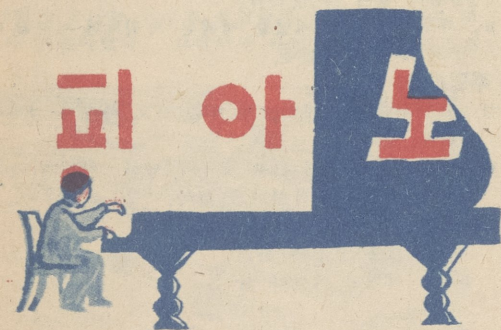
둘째로 바다'물의 온도와 염분(소금)이 변화되여 물의 밀도가 서로 달라지게 되면 밀도가 큰 곳에서 적은 곳으로 향하여 바다'물이 흐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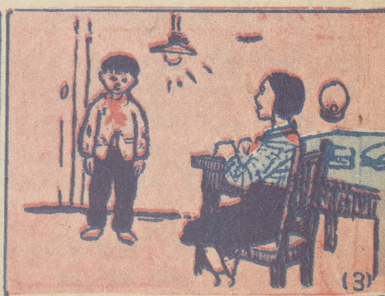
세째로 바다의 어떤 곳에 비가 많이 오든가 강물이 많이 흘러 들어 그 곳 수면이 높아지던가 해도 바다'물이 흐르게 된다.

네째로, 태양과 달의 인력(우주의 모든 물체들은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이 있다.)에 의해서도 흐르게 된다.

해류에는 한류(찬 물의 흐름)와 난류(더운 물의 흐름)가 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난류는 태평양 쪽에서 흘러 오는 구로시오 이고 한류로서는 북쪽에서 흐르는 리만 해류이다. 이 두 해류가 흐르면서 많은 작은 해류들을 흐르게 한다.

(동시)

문필봉에 아침해 솟아오를 때나
삼봉산에 저녁 노을 비칠 때에나
우리는 언제나 노래합니다

원수님이 주신 피아노 반주에 맞춰
황금산의 우리 자랑 노래합니다
행복한 우리 생활 노래 합니다

원수님은 우리들이 공부 잘 하라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뛰놀라고
아름다운 피아노 보내 주셨죠

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이 행복
최우등의 영예로 보답할 것을
약수'가의 꽃봉오리들 맹세합니다

평북 창성군 약수 중학교
김 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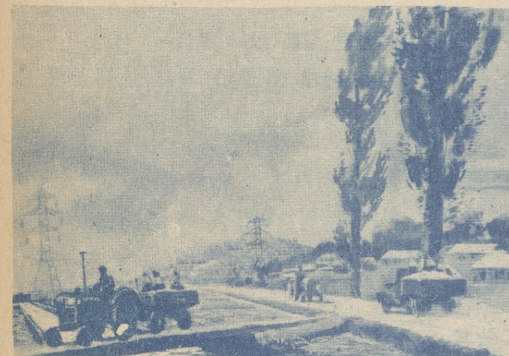
(동요)

독로강 푸른 물결
왜 바삐 흐르나요?
전기를 일쿠려고
신이나서 흐르죠

흰 물결 높이 추겨
무엇을 보나요?
원수님이 다녀 가신
꽃피는 우리 마을 살림을 보죠

와와 소리 높이
무슨 노래 부르나요?
기계 농사 흥겨운
우리 조합 노래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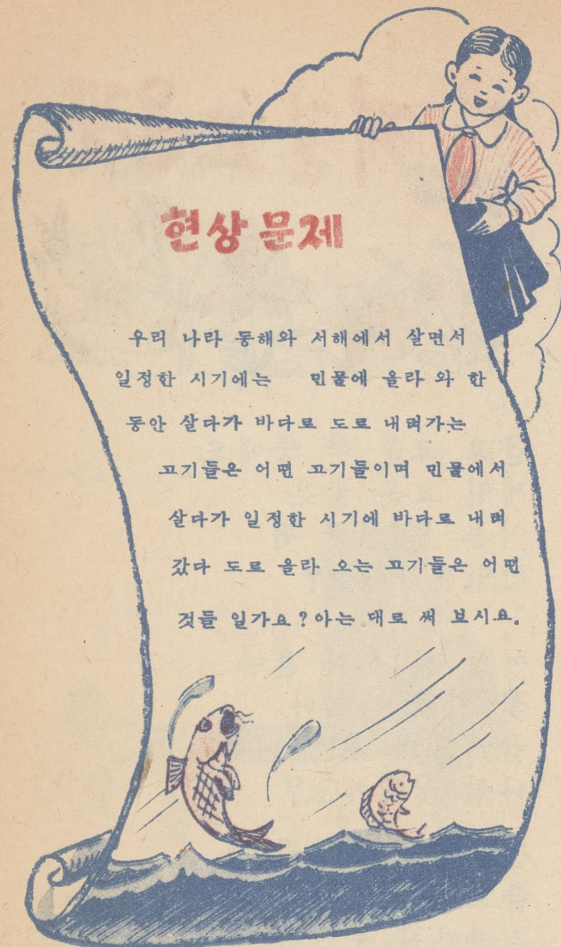
독로강은 넘실넘실
춤을 추며 흘러요
행복한 우리 마을을
그 언제나 노래해요

자강도 강계 공업학교
김 정훈

곱고 고운 꽃 중에도
제일 고운 꽃은
이른 봄 선참 핀
진달래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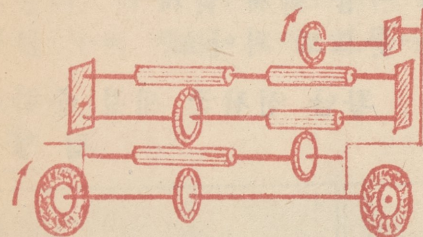
여름 철 우리 분단
꽃 밭에 언제나
곱게곱게 피여 나는
나팔 꽃이예요?

진달래도 나팔꽃도
곱고 곱지만
소년단원 우리의 마음 속에 핀
붉은 꽃은 몇 배나 더 고와요

김 일성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 마음 붉게 붉게
고운 꽃으로 피어요

황남 신천군 새길 중학교
림 정선

만화

1 호 현상 문제 답안

자동차 바퀴는 그림에서와 같이 첫 치차가 돌아 가는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1 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북도 철산군 초등 학원	김 덕남
평북도 염주군 련산 중학교	리 창선
평북도 운전군 대연 중학교	차 영옥
평남도 평원군 원일 중학교	방 달옹
평남도 순안군 산음 중학교	김 영선
함북도 유선군 계림 중학교	신 동춘
함남도 오로군 중상 중학교	주 규순
함흥시 경흥 중학교	김 시웅
황북도 봉산군 독정 중학교	정 명룡
황북도 린산군 련풍 중학교	고 치안
황남도 삼천군 삼천 중학교	강 선용
황남도 송화군 룡호 인민 학교	박 선주
황남도 송화군 률리 중학교	리 원영
량강도 백암군 천수 중학교	박 관두
강원도 회양군 오랑 중학교	김 남규

속담 풀이

1)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한 번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힘을 기우려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말.

2) 고기보고 기뻐만 말고 가서 그물을 뜨라

일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미리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힘을 기울려야 한다는 말.

3) 그물이 천 코면 걸릴 날이 있다

항상 부지런 하면 훌륭한 성과가 이루어 진다는 말이다.

5) 주먹 구구에 박터진다,

계획성 없는 일이 성과를 거둘 수 없고 나중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본호 9 페지 둘째단 아래서부터 첫째 줄과 둘째줄의 《꽃다발》을《꽃다발》로 《받으시자》를 《받으시자》로 고칩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2년 제 4 호 (총 150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230140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증기로 움직이는 배 만들기

이 배는 증기의 힘을 리용하여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 배를 만드는 데는 다음과 같은 재료와 공구들이 필요하다.

(1) 재료

엷은 철판(통조림 통을 리용하는 것이 좋다)과 고무관 2 개가 필요하다.

(2) 공구

함석 가위, 구리 도끼, 납, 청강수, 눈'금자, 줄칼, 송곳, 집게.

(3) 모형들의 명칭

①—갑판. ②, ③—측판. ④—선미판. ⑤, ⑥—밑판. ⑦, ⑧, ⑨—증기 가마. ⑩—조타실 및 선실. ⑪, ⑫—증기 도관. ⑬—선미 기'발. ⑭—키.

(4) 배 만드는 법

먼저 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판에 그림 2와 같은 형태를 그리고 양철 가위로 정확히 따 낸 다음 갑판 ①을 그림 ③과 같이 선미판 ④를 구부려 만들고 측판 ②, ③을 부친다. 다음에는 밑판 ⑤, ⑥을 부치고 만들어진 측판에 부친다.

납으로 부칠 때 주의할 것은 납 땜을 단번에 해나갈 것이 아니라 먼저 몇 군데식 땜을 하면 땜 하기가 아주 쉽다.

다음에는 조타실과 증기가마를 만들어야 하는 데 조타실은 철판 혹은 두꺼운 마분지로 ⑩과 같이 오려 낸 다음 갑판 ①에 있는 구멍에 맞추어 납으로 땐다. 그리고 증기 가마는 ⑦⑧⑨로 그림 4와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증기가 나갈 수 있도록 ⑫로 증기 도관을 만들어 ⑦의 구멍에 꽂아야 한다.

앞으로 할 일은 증기 가마를 조타실 우에 올려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⑧에 달린 양철 이'발을 구부려 조타실 벽에 부치면 된다.

다음으로는 고무관을 증기 가마에 꽂은 도관과 선미판 ④에 있는 증기 도관에 연결시키면 작업은 끝난다.

(5) 띄우는 방법

증기 가마에 물을 넣은 다음 3 cm 정도되는 초에다 불을 부치고 가마 밑에 부처 놓는다. 그러면 가마 속에 있는 물은 증기가 되여 고무관을 통해 밖으로 세차게 나간다. 배는 증기의 힘으로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